

미래에셋증권 VIP 고객을 위한 글로벌 자산관리 매거진

OBLIGE CLUB

오블리제 클럽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미래에셋증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미래에셋증권 스마트금융센터 1588-9200

글로벌 자산관리 전문가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JAN - FEB
2016

코리아리서치센터의 2016 증시전망
절세되는 ISA, 어떻게 활용하나?

글로벌 자산관리 전문가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OBLIGE CLUB

미래에셋 오블리제 클럽은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미래에셋증권의 VIP 자산관리 브랜드입니다.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은 격월간으로 발간됩니다.



전주지점 김정호 고객作 「겨울산」

Oil on canvas, 53.0 × 41.5cm, 2015

(제34호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자유작품 공모전 우수작)

스페셜 섹션

코리아리서치센터의 2016 증시전망

06 기획특집 I 2016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0 기획특집 II 시황전망 : China Expansion

14 기획특집 III 투자전략 : Quality Matters

프리미엄 라이프

20 생각하는 인문학 세상도 바뀌고 기준도 달라진다

22 지중해 오디세이 비너스 석우(石偶), 미노타우로스, 아가멤논

26 건강한 노후 노화지표에서 발견한 인티에이징의 해결책

28 풍경이 있는 여행 강릉 선교장(船橋莊)

32 자연 속 힐링 푸드 버섯을 이용한 보양식

34 생활의 품격 음식을 즐기는 방법 테이블 매너

38 공연속으로 연극 <렛미인>

글로벌 자산관리

42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2016년 자산배분전략 : Don't Fight Uncertainty

48 핫상품 지속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대안 - 통신폰드

52 ETF 이야기 ETF의 성장과 진화, 투자자들을 매료시키다

56 자산관리 이슈진단 안갯속 글로벌 투자환경, 내 자산에 전조등을 켜자!

60 채권투자 노하우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금리 시대 채권 투자법

64 해외주식 톨아보기 '선강통'이 가져 올 투자기회

어드바이저리

70 절세 가이드 절세되는 ISA, 어떻게 활용하나?

72 부동산 솔루션 2015 고객 자산가들의 부동산 관심사 TOP 5

74 법률 클리닉 명도소송의 어려움

WM뉴스

76 뉴스 I 미래에셋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 'V-Point'

77 뉴스 II 제10기 살롱 아카데미 - '아름다운 궁궐 사진과 조선왕조 이야기'

77 뉴스 III 미래에셋증권 문화기행(文化紀行) 사진으로 읽는 인문학

78 특집 - 명예의 전당 WM세미나 우수직원 8인

VIP 고객 참여 공간

81 제 34호 자유작품 공모전 당선작 갤러리

92 VIP 에세이

94 자유작품 공모전 참여 안내

95 문자참여 이벤트 응모 안내



기획특집

코리아리서치센터의
2016 증시전망



풍경이 있는 여행

강릉 선교장
(船橋莊)



ETF 이야기

ETF의 성장과 진화,
투자자들을 매료시키다



<오블리제 클럽>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smartmiraeasset.com > 투자정보 > 매거진 라이브러리 >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한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 발행 외의 채권에 대해 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중도매매시 시장금리 등에 따라 원금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입니다. ■ ISA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와 납입한도 통합관리)이며, 가입기한은 2018년12월31일까지입니다. ■ ISA 의무가입기간은 5년(15~29세 청년과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3년)입니다. ■ ISA는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총 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일중매매는 거래전략 등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단기간 내에 상당액을 손실할 수 있고, 잦은 매매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의 과다 발생으로 수익 실현 기회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 스마트폰, 태블릿 0.015% / HTS 0.029% / 오프라인 0.448%(2억 이하)입니다(거래 매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중국-상해A : 온라인0.3%, 오프라인0.5% 등입니다(기타국가 및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국가별 세금 및 기타비용 있음).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매거진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금융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소중한 고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은
2016년,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코리아리서치센터의 2016 증시전망과 투자전략을 소개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과 자산배분 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코 리 아 리서치센터의 2 0 1 6 증 시 전 망

- I. 2016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II. 시황전망 : China Expansion
- III. 투자전략 : Quality Matters



기획특집 I

2016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16년에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몇 년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 세계경제는 4년째 2.5% 내외 성장률을 지속해 왔으며,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변화의 폭은 미미할 전망이다.

글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코리아리서치센터
투자분석팀장
✉ hcpark@miraesasset.com



경기사이클 소멸된 세계경제, 2016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과잉 공급능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로금리, 양적 완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은 경기의 심각한 하락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과잉 공급능력을 조정하지 못했으니 신규 투자를 하기가 만만치 않아졌다. 기업의 줄도산을 막아 대량 실업 사태는 면했지만 한계기업이 존속하다 보니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해졌고, 이는 신규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기 사이클이 소멸된 또 다른 이유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엇갈린 경기 방향성 때문이다. 선진국은 2013년 이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신흥국 경제 성장률은 2010년을 정점으로 5년째 내리막이다. 한쪽은 좋아지지만 다른 한 쪽이 나빠지면서 그것을 상쇄해 버리니 세계경제 성장률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 지속전망

선진국 중에서는 역시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구매력이 큰 폭 개선된 효과로 2015년 3%대 증가율을 보인 미국의 실질 소비는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될 여지가 있지만, 강달러가 덜해지고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2015년에 감소세를 면하지 못했던 수출도 2016년에는 약간의 증가세가 기대된다. 유럽은 유로화 약세 효과가 조금 덜해질 수는 있지만 재정 확대 시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질적 개선이 예상된다.

반면에, 원자재 수퍼 사이클이 되돌림을 겪고 있고 중국 효과도 약화된 환경 속에서 신흥국의 경기 어려움은 2016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몇몇의 원자재 수출국에서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인플레이, 그리고 저금리 구도 지속

미국은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2016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저금리 구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FRB 금리 인상보다 글로벌 저인플레이의 지속이 전 세계 금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공급 과잉의 현실은 주요국 생산자물가 하락에서 잘 드러난다. 공급과잉의 대표 국가인 중국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시작되어 이제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일부 소비재에서 상황이 조금 낮긴 하지만 생산자물가 하락은 거의 모든 섹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철강, 화학, 기계 등에서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장기화 조짐을 띠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조업에서는 디플레이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며, 이는 전 세계 저인플레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들은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일본의 양적 완화 지속이 대표적이며, 그 외 선진국과 외화건전성 우수한 일부 신흥국(주로 아시아)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다.

환율전쟁 약화, 아시아 공업국에 우호적인 환율 여건 예상

2012년 이후 만성화된 뉴노멀의 시대는 곧 환율전쟁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성장 잠재력이 제한되다 보니 환율 조작을 통해 자국의 살길을 경쟁적으로 도모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사실 미국이 먼저 시작했지만, 일본이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보다 심하게 참전했고, 2014년 하반기부터는 유로존이 동참했다.

그래서, 2014년 하반기에서 2015년 상반기까지는 일본과 유로존처럼 환율전쟁에 승리한(통화 약세에 성공한) 그룹과, 중국과 미국처럼 환율전쟁 피해 그룹으로 나뉘어졌다(한국, 대만과 같은 아시아 공업국도 피해 그룹).

하지만, 2015년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뭔가 조금씩 국제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먼저, 유럽과 중국은 인프라투자 동맹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유로존 핵심 국가들이 참여를 선언했고 유럽이 추진하는 용커플랜에 중국이 자본금을 태워줬다. 미국과 일본도 환태평양무역기구(TPP)로 얽히는 관계가 되었다. 더

욱이, 2016년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된 만큼, 일본이 환율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유럽과 일본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나라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하기 힘든 국제 정세가 펼쳐지는 상황이 되었고, 이와 함께 환율전쟁은 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전쟁의 완화는 곧 유로화와 엔화의 추가 약세가 진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유로화 및 엔화 대비 원화의 일방적 강세 국면 또한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

환율전쟁이 완화되었을 때 수혜국은 미국과 아시아 공업국이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 공업국은 동유럽과 함께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로서 원자재가 격 하락의 수혜국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환율 피해 때문에 원자재가격 하락 수혜를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국 차별화: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디폴트 리스크 경계

2015년 하반기 이후로 중요 리스크 요소는 원자재기업의 디폴트 리스크이며, 2016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공급 우위)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자재 기업의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만한 상황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자재 기업들은 에너지 및 광산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의 외부 자금 조달이 있었기 때문에 업황 호전이 없으면 결국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 올리는 몇몇 국가들에서 부도 위험이 큰 듯하다. 그 대표 지역이 브라질을 필두로 하는 중남미이다.

끝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중국도 건설/부동산 섹터를 중심으로 크레딧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4대 국유은행이 중심이 되는 금융시스템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점진적 부도 현실화 정도로 상황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어, 심각한 금융 위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소비 중심 성장 또는 경기 연속착륙을 큰 마찰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치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해서 당장은 이상 조짐이 없어 보인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금융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시황전망 : China Expansion

2016년은 중국 팽창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팽창이란 생산량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 위안화 국제화와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이 핵심이다.

글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코리아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 jaehun.lee@miraesasset.com



2000년대 중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운용 모토는 ‘고성장’에 있었지만, 이후 중국은 완만한 성장 속 개혁(Reform)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와 국제화된 벤치마크 내 중국 주식 비중 확대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 결과 2015년 11월 중국 위안화는 IMF의 특별한 출권에 편입되었다. 엔화를 제치고 세계 3대 통화로 위상을 확보했다. 자본 시장 개방 역시 중국 팽창의 주요 골자다. 본토증시를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하는 것이다. 국제 벤치마크인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본토증시를 편입하려는 노력도 이 때문이다.

위안화의 국제화 노력은 통화의 안정성 확보

위안화 국제화 노력은 궁극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확보에 있지만, 부가적 실익은 통화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얻은 교훈은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경기 부양 전략은 국제화된 통화를 가진 나라만의 특권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우 통화증발이 자금 이탈로 이어지지 않는다. 선진국 통화는 위기 국면에서 안전한 통화로 부각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통화량 정책이 시차를 두고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지만, 글로벌 자금은 오히려 일본으로 유입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신흥국은 이 방법을 쓰기 어렵다. 외국 자본의 의존도가 높고 통화가 국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흥국은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릴 경우 환율이 급등하고,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 이탈과 이를 막기 위한 외환보유고 감소 부작용이 발생한다. 외환보유고 감소는 국가 신용등급 결정에 부정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바로 신흥국 원죄론(Original Sin)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직접적인 환율 조작을 피하는 대신, 국제화된 통화 묶음인 SDR 바스켓 내 위안화를 편입함으로써 자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본토증시 개방의 의미

한편, 중국 본토증시 개방은 전 세계 자본시장 내에 중국의 물리적 비중 확대를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있던 중국 본토증시(A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이미 2014년 후강통(홍콩-상해)을 실시했고, 2016년에는 선강통(홍콩-심천)도 예정되어 있다. 2013년부터 중국은 국제 벤치마크인 MSCI와 함께 신흥국 지수에 본토증시를 편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화된 벤치마크 내에서 비중이 커지게 되면 중국은 풍부한 유동성을 얻게 된다. 외국 자본 필요성은 지난 6월 말 상해증시 급락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2014년 말 후강통 시행을 비롯해 중국 본토증시 신흥국 지수 편입 기대로 중국 상해증시가 2000포인트대에서 5000포인트대로 수직 상승했지만, 6월 본토증시 부분편입이 보류되면서 주가는 3000포인트대로 급전직하를 경험했다. 중국 정부는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해 추가 급락을 막았지만, 만일 본토증시의 신흥국 지수 편입이 결정되었다면 해외 유동성 유입으로 완만한 차익실현이 가능했을지 모른다. 2016년 6월 정기 리뷰 혹은 그 전에라도 중국은 QFII 등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본토증시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을 관철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전개는 한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 인덱스에 본토증시까지 점진적으로 가세하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 신흥국의 상대 비중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국 지수 편입 예비 후보국에서 2014년 제외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는 시간보다 중국 본토주식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속도는 빠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시장의 선진국 편입에 대한 시각

중국의 팽창은 결국 한국 시장의 국제화를 주문하고 있다. 우리에게 국제화란 자본시장의 개방 정도가 아닌 해외 자금의 한국 주식 투자 편리성을 의미한다. MSCI의 고객인 선진국 투자자들은 접근성(Accessibility) 문제인 외환 거래 불편과 외국인 투자 제도의 경직성을 근거로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24시간 원화 환전 불편함으로 원하는 환율 수준에 포트폴리오 변경이 불편하다는 것이고, 외국인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려 7년간 지적해 오다 급기야 지난해 한국을 선진국 편입 잠재 후보국에서 제외했다. 후보국 제외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한국의 접근성이 시간이 흘러도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체념의 의미이며, 둘째, 한국의 접근성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잠재 후보국 재편입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편입시기가 당

초보다 최소 1년은 더 연장됨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환전 문제에 경직적인 이유도 있다. 외환위기의 경험 때문이다.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은 환투기 등 외환의 변동성을 우려해 역외 원화 직거래시장은 허용하지 않고, 역외 선물환(NDF) 시장만을 열어두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환율에 매우 민감하기도 하거니와,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의 한계로 외국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는 자본시장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목적이 컸다. 이러한 이유로 원화의 역외거래 허용이 단기간 내에 어려울 수 있으나, 선진지수 편입이슈를 배제하더라도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의 팽창을 피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우리에게 정말 이득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우려대로 장단점이 있다. 우선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 시가총액 15%(2015년 12월말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의 2위 국가다.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시가총액 비중은 2% 전후로 하락하고, 국가 시가총액 랭킹 역시 9~10위 권으로 떨어진다. 선진국 벤치마크 투자자들이 반드시 한국 주식을 매수해야만 할 이유가 신흥국에 있을 때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다. 현재 한국 증시 PER은 10배로 전체 신흥국 11배 대비 9%, 선진국 16배 대비 무려 37%가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2015년 12월말 기준). 물론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된다는 것만으로 한국시장 밸류에이션이 상향되지 않을 것이다. 밸류에이션 팽창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기반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경로란 한국의 대형 종목의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경우 현재 PER이 각각 9.5배, 5.7배인데 선진국 지수 내 해당 섹터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IT 하드웨어 업종과 자동차/부품 업종의 평균 PER은 각각 12.6배, 10배)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2015년 12월말 기준). 선진국 종목과의 경합을 통한 밸류에이션 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부작용이 있다. MSCI Korea 구성 종목 모두가 선진국 종목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 중형 종목이 선진국 벤치마크에서 배제될 수 있다. 선진국과 경합이 가능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는 부작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에서 감내할 희생일 것이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금융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전략 : Quality Matters

2015년 금융시장이 미국 통화정책, 원자재 시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됐던 시기였다면, 2016년은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산간, 국가간 '차별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별화의 잣대는 'Quality' 로 판단한다. 예전과 같은 이분법적인 접근법(주식/채권, 선진국/신흥국) 보다는 투자 대상의 선택이 좀 더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글 류승선
미래에셋증권 코리아리서치센터장

✉ seungsun.ryu@miraesasset.com



다양한 경로의 질적 변화

질적인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찰될 수 있다. 먼저 글로벌 경제의 경우, '양적 수렴 및 질적 차별화' 구도로의 전환을 꼽을 수 있다. 원자재 슈퍼 사이클 때와 같은 선진국, 신흥국 간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기보다는 수렴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질적 개선이 뒷받침되는 국가가 비교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개별 국가 및 업종 측면에서 보면 '미국 인플레이 vs. 미국 외 디플레이', '서비스업 인플레이 vs. 제조업 디플레이' 구도가 대표적인 질적 변화이다. 각각의 함의는 명쾌하다. 미국은 투자 정상화로 인해 선순환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중국의 경우 내수 중심의 성장을 가속화 시키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지역은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성장 → 투자 → 성장'이라는 선순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미국 이외의 지역(특히 중국)의 경우 서비스업 중심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인 저성장 '체감' 국면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보다는 내수 둔화 가능성이 부담인데 역설적으로 '저금리 및 고환율'이라는 정책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

2016년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경우, 상대적 안정성 및 건전성 높은 미국 및 아시아 신흥국 주도의 제한적 강세를 예상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3년간 유지된 박스권 구도가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기업이익 정체화 지속되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2016년 순이익 증가율은 6~7%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현상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의 경우 수년째 실적 정체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 대표업종인 수출주들의 실적 정체 흐름이 지속되는 데다 구조적 저성장 및 기업 체질 변화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주식은 ‘밸런스’전략을, 채권의 경우 ‘미국 크레딧 + 알파’ 전략, 외환의 경우 ‘원화 약세’ 염두에 둔 접근이 유리해 보인다. 이른바 ‘Buy Quality & Inflation’ 전략이다.

주식의 경우, 高 Quality 자산인 ‘미국, 서비스업, 그리고 Swan’(고밸류에이션, 이익 가시성 및 성장성 높은 기업)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과 더불어 부진했던 기업 중 질적 개선이 수반될 수 있는 Ugly duckling(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으로 회생할 기업. 수혜는 ‘지주회사’) 기업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채권의 경우 미국 크레딧물(투자등급)과 아시아 신흥국 국채(USD)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 전망과 더딘 속도의 미 연준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신흥국들의 과도한 레버리징으로 인한 크레딧 위험이 부채의 증권화 경로를 통해 투자자 중심으로 증폭될 수 있는 점에서 이러한 전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외환시장의 경우 미국 달러는 중기 완만한 강세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 역시 완만한 추가 약세가 예상된다. 이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국내 경쟁력 복원 관점에서 한국 경제에 절실하게 필요한 변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각 자산 별 전망들을 고려한 ‘2016년 자산선택 및 배분’의 경우, 주식 > 채권 > 원자재(실물) 순의 자산 선호를 제시한다. 주식의 경우, 선진국 > 신흥국, 선진국 내 미국 > 유럽 > 일본, 신흥국 내 동아시아 > 기타 아시아 > 기타 신흥국 순의 선호를 가정하고 있고, 채권 내 미국 크레딧물과 아시아 신흥국 USD 국채를 최선호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변동성 확대 속 불가피하게 Quality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2016년 투자환경을 예상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되는 알파 자산은 글로벌 REITs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REITs는 배당주 성격의 자산으로, 홀수 해 성과가 부진했던 반면 짝수 해 성과는 양호했던 경험치를 상기한다면 2016년 중 주목할 만한 알파 자산 중 하나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구조적 패러다임의 변화로는 다음의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5S(Service, Smart, Single, Sharing, Senior 등) 주도의 Quality 기반 투자 환경

선진국 Service의 진화, 신흥국 경제 및 주식시장 내 Service 비중 확대, Service 인플레이 등은 Service의 중요성을 지속 환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는 점에서다. Smart Consumption은 온-오프 융합 및 모바일 전자결제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한편, 단순화 및 편의, 고가 선호, 과도한 몰입(덕후), 건강 및 여가 등을 키워드로 하는 Single Economy 확대는, 자연스럽게 Sharing Economy의 강화 및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한 Senior Economy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 컨셉 중 하나로 판단된다.

두 번째, 글로벌 M&A, Restructuring & Reorganization

대내적으로 ‘구조조정 이슈’는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미국 및 중국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고, 그간 구조조정에 인색했던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2016년에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차적으로 그 수혜는 ‘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아시아 브랜드 가치의 성장성

소비의 시대를 맞아 중국 이외 아시아(아세안 및 인도)의 소비 확대와 브랜드 가치도 중요한 투자 기회로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Top 100 브랜드에 한국 기업의 추가 진입이 전무한 가운데 2014년 HUAWEI에 이어, 2015년 Lenovo의 신규 진입은 가히 위협적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자본흐름과 신흥국 도시화

거대 Chinese capital의 해외투자 흐름과 2nd stage 신흥국 도시화(Greater India: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도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 역시 중장기 투자 테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요컨대, 2016년 금융시장은 ‘정상화’로 가기 위한 질적 개선이 수반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막연한 낙관을 갖기는 어렵다. 하지만 먼저 체질 개선에 나선 국가 및 기업은 차별화의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질 시점으로 판단한다.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할 시기인 셈이다.

OBLIGE CLUB

■ 본 조사항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금융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 라이프

IT CAN ONLY BE FOUR SEASONS

일상의 특별한 여유를 원하시나요?

포시즌스만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포시즌스 클럽 서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클럽 회원은 청정 자연 수준의 공기 속에서
최첨단 운동 기구로 구성된 세계적인 수준의 피트니스와
도심 속에서의 모든 심신의 피로를 풀어줄 사우나와 스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최고급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라운지까지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포시즌스의 명성과 혜택을 그대로,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서울에서 경험해 보세요.



FOUR SEASONS CLUB
Seoul

20 생각하는 인문학

22 지중해 오디세이

26 건강한 노후

28 풍경이 있는 여행

32 자연 속 힐링 푸드

34 생활의 품격

38 공연속으로

미래에셋증권 VIP 고객을 위한

글로벌 자산관리 매거진



생각하는 인문학

세상도 바뀌고 기준도 달라진다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100세와 120세 시대가 열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인류는 유사 이래로 장수를 큰 바람으로 여겨왔다. 120세 시대의 개막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개인이 살아있을 때 세상의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평화로운 시대를 살다 보면 웬만한 큰일은 큰 일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 즉 어제와 오늘과 같고, 내일은 오늘과 같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글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



세상의 큰일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앞서 자그마한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커다란 변화로 일어난다. 이렇다 보니 정작 변화를 마주하고서도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하던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하게 된다. 상양(商輅)은 춘추전국시대를 살면서 사회와 역사가 일정한 주기로 바뀐다는 점을 역설하고, 그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세사변이행도이(世事變而行道異),
행위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다**

상양의 시대는 부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부속 행정 단위로 만들었다. 이를 멸국치현(滅國置縣)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말로 하면 적대적 인수합병에 해당된다. 상양은 멸국치현의 시대를 살며 사회와 역사가 아무런 변화 없이 진행되는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상양은 지나간 역사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며 역사가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역사를 상세(上世), 중세(中世), 하세(下世)로 구분하고 각 시대마다의 특징을 밝혔다. 예컨대 상세는 인류가 태어난 시대로 모계사회에 해당된다. 이때는 혈연을 기준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친한 특성을 보였다. 그 결과가 친한 사람끼리 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사람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중세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현자(賢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대립을 일삼자, 지적으로 탁월한 현자가 대립의 당사자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욕망이 다양해지자 현자의 역량이

사회적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시금 사람 사이의 대립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하세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와 경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약속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많아지고 개개인의 지성이 계발되자 현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시비가 생기면 그것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되었다. 물질은 소유 관계를 문서로 확실히 하여 논쟁을 불식시키고 남녀는 각각 성 역할을 정해서 서로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상양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하고 시대마다 사회 운영의 기준을 달리 밝혔다. 이를 통해 상양은 세상의 일이 계속 바뀌고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이전과 달라진다는 “세사변이행도이(世事變而行道異)”라고 주장했다.

현실을 읽는 눈을 키우자

상양은 역사가 퇴보한다거나 순환한다고 보지 않았다. 사람이 타락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준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양은 역사 발전론을 펼친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양이 역사를 읽어내는 방식에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시간 단위로 살아간다. 즉 주로 짧은 시간 단위를 의식하며 그 속에 자신을 맞춘다. 몇 시에 무엇을 하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하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1주일, 1달, 1년의 시간은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10년, 100년, 1000년의 시간에 대해 머나먼 남의 일처럼 여겨지게 된다. 이렇게 긴 시간의 단위에 익숙하지 못하면 작은 변화가 쌓여서 일어난 큰 변화의 징후를 읽어낼 수 없다. 징후를 읽어내지 못하니 큰 변화로 인한 고통을 겪을 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

상양은 1년에 한정되지 않고 긴 역사를 마주했다. 긴 역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종합하고서 역사를 하나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어서 그는 그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누어 모계, 현자,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냈다.

사람은 현실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만난다. 이렇게 만나는 구체적인 시간을 전체적으로 꿰뚫지 않으면, 결국 시간의 꿈무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허겁지겁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시간으로부터 여유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 방향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읽는 눈은 시대를 창조하는 지혜에 통한다. 이러한 지혜를 갖는다면 미래를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실루엣을 통해 그 정체를 꿰뚫어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현대사회가 거시적으로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작은 변화가 미래에 어떤 큰 변화로 그 모습을 드러낼지 예측하는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OBLIGE CLUB**

글쓴이 신정근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동양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교문화연구소 소장과 유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동양철학의 유혹>, <동양철학 인생과 맞짱 뜨다>,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지중해 오디세이

비너스 석우(石偶), 미노타우로스, 아가멤논 - 키클라데스, 미노아, 미케네 문명 -

그리스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비너스 석우, 크노소스 궁전, 미케네 사자문 등 다양한 유적과 그리스 신화를 통해 그리스의 역사를 만든 세가지 문명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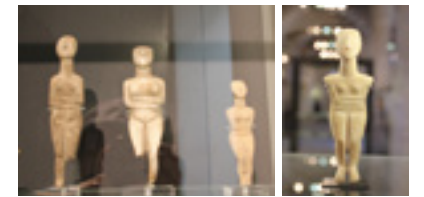
글·사진 김문환 (극동대학교 초빙교수)



(사진 3) 돌로 다듬은 석조도시, 그리스 크레타 섬 크노소스 궁전

비너스 석우(石偶)-키클라데스 문명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프랑스 파리 루브르를 찾아 그리스 역사관으로 발길을 옮기면 가장 먼저 비너스 석우(石偶)를 만나지요. 30cm 안팎의 돌 조각인데요. 비너스라고 해서 아름다운 여인 얼굴을 연상하면 곤란해요. 간혹 남자 몸이 발굴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성 인체의 기본 특성만 갖춘 돌 인형이어서 비너스 석우(石偶)라고 부른답니다.(사진 1, 사진 2) 무덤 부장품으로 쓰던 이 돌 인형은 그리스 전역에서 발굴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게해 푸른 물결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섬들 그러니까, 낙소스, 파로스, 멜로스, 테라(산토리니), 시프노스, 케오스 같은 키클라데스 제도(諸島)에서만 출토돼요. 그래서, 그리스 역사 첫 출발을 이들 비너스 석우(石偶)가 나오는 지역 이름을 따 키클라데스 문명(Cycladic Civilization, B.C 3000년-B.C 2000년)이라고 불러요. 그리스 역사는 그렇게 첫발을 땀니다.



(사진 1, 사진 2)

비너스 석우, 좌:대영박물관, 우:루브르 박물관

크노소스 궁정과 미노타우로스-미노아 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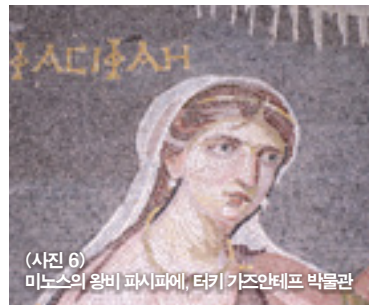
크노소스 궁전.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이름이지요. 어디일까요? 그 기원을 찾아가면 1900년 영국 고고학자 에반스 경(卿)에서 비롯돼요. 키클라데스 제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게해 최남단에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 가로누워 있습니다. 크레타 섬이요. 올리브 나무 가득한 지중해 풍경의 크레타 섬에서 에반스 경이 1900년 한 유적지를 힘들게 찾아냈는데요. 발굴 결과물은 주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돌로 다듬은 석조도시였거든요.(사진 3) 돌 건축물, 돌 포장도로, 거기다 돌로 만든 상하수도시설. 각종 음식물 등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항아리를 비롯한 유물들. 무엇보다 에반스 경과 발굴팀을 놀라게 만든 것은 천연색 프레스코 벽화였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 꽃병을 든 남자...(사진 4) 소를 타고 서커스 하는 남자(사진 5)등의 유물들... 평화로우면서도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유물이 3



(사진 4) 꽃병을 든 남자 프레스코, 대영박물관



(사진 5) 소를 타고 서커스 하는 남자, 대영박물관



(사진 6)
미노스의 왕비 파시파에, 타키아즈안테프 박물관



(사진 8)
아가멤논의 황금가면, 그리스 아테네 박물관



(사진 7) 미케네 사자문, 그리스 미케네

천 500여 년 세월을 넘어 찬란히 빛났거든요. 에반스 경이 발굴한 이 유적이 크노소스 궁전입니다.

뭔가 비밀을 간직한 듯한 크노소스 궁전에 누가 살았을까요. 에반스 경은 크레타 섬의 왕이던 신화 속 인물 미노스 왕을 떠올렸습니다. 제우스가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파를 보쌌해 이곳 크레타 섬으로 와서 살림 차린 뒤 낳은 아들이요, 신의 아들이란 특권을 강조해 크레타의 왕이 됐던 미노스. 그 미노스 왕이 살던 곳이라 여기며 에반스 경은 화려한 프레스코와 빼어난 석조 유적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도시문명을 미노아 문명(Minoan Civilization, B.C 2500년 전후 - B.C 1500년 전후)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미노스(Minos)왕에서 따온 거예요. 미노아 문명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전쟁 관련 유적이나 유물이 전혀 발굴되지 않아요. 높은 수준의 도시건축과 세련된 취향의 예술품을 남긴 문명이지요. 이 미노아 문명 시기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주역이 있어요. 물론 신화의 영역이긴 하지만요. 미노타우로스(Minotaurus)랍니다.

미노타우로스가 누구일까요? 이름에 미노스왕의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봐 미노스 왕과 관련 있어 보이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미노스가 크레타의 왕이 될 때 신의 아들이란 징표를 보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미노스의 큰아버지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멋진 황소를 보내줬지요. 이 덕분에 왕이 된 미노스. 욕심이 생겼어요. 큰아버지와 약속을 어기고 소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화가 난 포세이돈이 점잖지 못한 벌을 줬답니다. 경국지색의 절

세가인으로 칭송받던 미노스의 왕비 파시파에가 황소를 사랑하도록 만든 거예요(사진 6). 그것도 플라토닉(Platonic) 러브가 아니라 에로스(Eros)적인 사랑어요. 이 일을 어찌나요. 인간과 황소가 사랑할 수 있나요? 이를 해결해 준 이가 다이달로스예요. 그리스 최고의 목수요.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듯한 암소를 깎아요. 파시파에 왕비를 보고 꿈쩍도 않던 황소는 그만 암소 조각을 보고 발정해 달려들었답니다. 암소의 그곳에 파시파에가 들어가 사랑에 성공하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파시파에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열 달 뒤 소머리에 사람 몸뚱이의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나요. 그리스어로 미노스의 황소(Taurus)라는 뜻이지요. 그 미노타우로스가 살던 곳을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미궁(迷宮, Labyrinth)이라고 합니다.

미케네 사자문과 아가멤논 황금 가면-미케네 문명

키클라데스 문명이나 미노아 문명 모두 예게해가 무대잖아요. 이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스 역사가 물으로 올라와요. 그 현장이 그리스 본토와 붙은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 미케네랍니다. 미케네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도 한 번쯤 본 듯한 장면 하나. 사자문이에요(사진 7). 미케네 성문입니다. 돌산 위에 견고한 성벽을 둘러치고 웅장한 사자문 너머로 만든 도시. 웬지 평화적인 미노아 문명의 크노소스 궁전과 많이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미케네 문명(Mycenaean Civilization, B.C 1600년 - B.C 1200년)은 그리스 본토 북쪽에서 내려온 아카이아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정복자들이어서 그런지 군사적 내용, 강력한 왕권 등을 특징으로 한답니다. 미케네 성 내부의 왕실 공동묘지에서는 값비싼 황금 유물이 쏟아졌지요. 그중 황금 가면이 이름 높은데요(사진 8). 발굴자인 하인리히 슐레이만은 그리스 신화 트로이 전쟁에서 미케네왕으로 그리스 연합군 사령관이던 아가멤논의 부장품이라 여기고 아가멤논의 황금가면이라 이름 붙였답니다. 미케네 문명은 B.C 1200년경 종말을 고하는데요. 당시 동지중해를 휩쓸던 해양민족(Sea Peoples)의 침략으로 추정돼요. 이후 그리스 역사는 특별한 유적이나 유물을 남기지 못하는 암흑기(Dark Age, B.C 1200년- B.C 800년)에 들어갑니다.

OBLIGE CLUB

글쓴이 김문환 교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매일경제 신문 기자와 SBS 기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극동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로맨스에 빠진 그리스 로마>, <페니키아에서 핀 그리스 로마> 등이 있다.



건강한 노후

노화지표에서 발견한 안티에이징의 해결책

새롭게 맞이하는 1월, 깊어가는 주름과 여기 저기 쑤시고 아픈 부위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안티에이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안티에이징 치료 결과와 30여 만건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도출한 차음의 ‘10대 노화지표’를 통해 안티에이징의 해결책을 알아본다.

글 김경철 (차음 안티에이징센터장)



노화에는 장기의 노화, 호르몬의 노화, 마음의 노화, 뇌의 노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강과 노화 정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능 검사들 중 노화와 건강 지표 사이의 의미 있는 노화 지표들을 추렸다. 부신피질호르몬(DHEA-S), 성장호르몬(IGF-1), 혈압, 심혈관 칼슘이 대표적이다.

항노화 호르몬을 높여 안티에이징의 첫걸음

신장 위에 존재하는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부신피질 호르몬(DHEA-S)은 대표적인 항노화 지표다. 신장 부위에 있는 부신의 피질에서 분비되며, 뇌하수체의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ACTH)이 관여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하수체의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결과로 당질 피질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자극에 적응하도록 신체 조건을 조절한다. 체내에서 부신피질호르몬(DHEA-S)이 결핍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저혈당증이나 근육약화, 골밀도와 근육이 저하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자율신경 기능이 감소하는 등의 노화 현상이 촉진될 수 있다.

Doctor's Advice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되는 반면, 항노화 호르몬이나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낮추려면 산책, 많이 웃기, 운동 등을 통해 몸속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분비를 도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노화 지표로는 성장호르몬이다. 청소년기에 키를 자라게 하는 성장호르몬은 성장이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분비돼 근육, 골밀도 등 우리 몸의 대사과정에 깊숙이 관여한다. 대뇌 밑에 위치한 콩알만 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데, 성장호르몬의 감소는 노화와 매우 밀접해 피부노화, 갱년기, 근육감소, 복부 비만 등의 원인이 된다. 성장호르몬 분비는 사춘기에 정점을 이루고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0년에 약 14%씩 감소하니 성장호르몬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요한다.

Doctor's Advice 성장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왕성하게 분비된다. 성장호르몬을 직접 투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한 숙면과 운동의 생활화, 식생활의 조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다량의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면 당뇨병이나 근육병, 미세 혈관 장애, 조기 사망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전문 의와의 지도 하에 투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칼슘 복용과 심혈관 칼슘 수치도 확인

나이가 들면 뼈 건강을 걱정하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체내 칼슘의 99% 가량은 치아와 뼈에 저장 기능과 구조를 지지하는 반면 남아 있는 1%는 근육 기능과 신경전달, 호르몬 분비, 혈관 이동을 돕는다. 때문에 체내 칼슘 수치는 노화 진행과 관련성이 높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골밀도는 떨어져도 심혈관 칼슘이 증가하는 ‘칼슘 파라독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몸에 칼슘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뼈 이외의 다른 부분에 칼슘이 필요 이상을 존재하는 모순된 상태인

것이다. 과도한 칼슘 섭취는 변비, 심혈관 부작용, 신장 결석과 급성위장증상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는 심혈관내 칼슘 지수가 높으면 칼슘 보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정도로 칼슘 섭취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octor's Advice 특히 칼슘의 과다 복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천연칼슘에는 식이섬유, 인산, 단백질 등 칼슘의 흡수와 기능을 조절하는 보조인자가 포함돼 있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합성 칼슘에는 보조인자가 결여됐기 때문이다. 칼슘 섭취가 권장된다면, 골밀도를 비롯해 현재 건강 지표를 전문의와 살펴본 후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운동은 체중 관리보다는 근력 운동 중심으로

무엇이 생체나이를 젊게 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금연과 운동이 가장 노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운동을 통해 체중 감소보다는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그룹에서 생체나이가 가장 젊고 대사증후군과 항노화 호르몬 분비가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꾸준히 안티에이징 관리를 받은 74세 환자는 생체나이가 9살이나 젊은 65세로 나타난 반면, 72세 환자는 생체나이는 80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결정적 차이는 체지방률이었다. 74세 환자의 경우 체지방률이 9.9%이었고 72세 고액의 체지방률은 23.9%이었다. 74세 환자는 근육운동 중심의 규칙적인 생활과 필요한 영양제와 유산균을 복용 했으나, 후자는 운동 부족에 잦은 음주가 원인이었다.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체중을 줄이고자 무조건 굶어서 체중 조절을 신경쓰기 보다는, 근육운동을 병행하여 적절한 근력량을 유지하고 체지방률을 낮추는 것이 항노화의 비법이다.

글쓴이 김경철 센터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외래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CHA의과대학교 교수로 있다. 전문분야로는 갱년기, 만성피로, 항노화, 대사증후군 등이 있다.



풍경이 있는 여행

파도 따라 올리는 감미로운 거문고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강릉 선교장(船橋莊)

구절양장의 대관령 옛길을 따라 동해의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강릉으로 달려가면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한국 최고의 한옥, 선교장을 만나게 된다. 예전엔 경포호수를 가로질러 배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 다녔다하여 ‘선교장(船橋莊)’이라 명명되었다.

글 이태훈 (작가)



밤 새 내린 눈으로 마치 설국과도 같은 강릉 선교장의 모습

이곳은 효령대군의 11대손인 무경 이내번이 1703년 충주에 살다가 외갓집인 강릉 경포대에 와서 터를 잡았고, 10대에 이르도록 증축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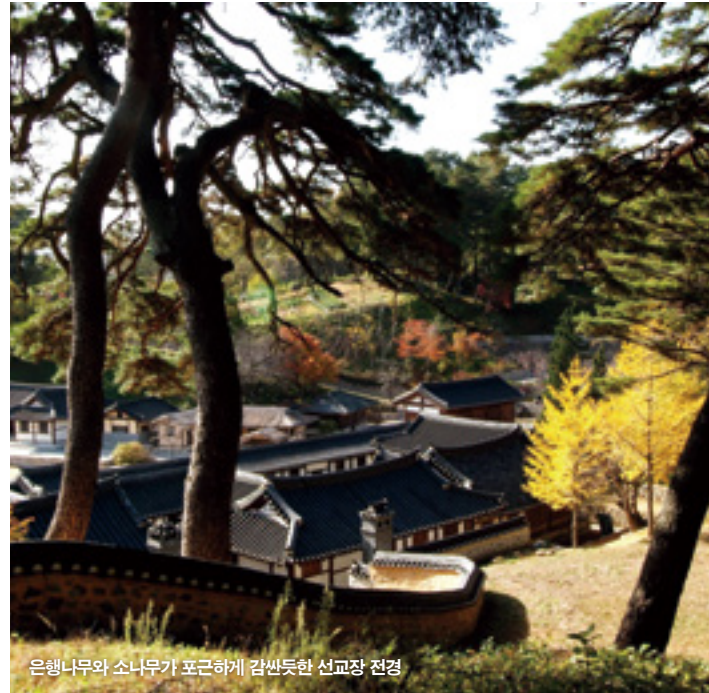
조선 시대 한옥은 보통 99칸이지만 선교장은 120칸의 대규모를 자랑한다. 그리고 양반 가옥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1967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00년에 KBS에서 ‘20세기 한옥 TOP 10’을 선정할 때 전통 가옥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한옥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3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선교장이 큰 규모로 지어진 이유는, 주인이 당대의 예술가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문화예술에 대한 담론을 즐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교장을 찾았던 것이다. 또한 경포대 주변의 설악산, 금강산 등 빼어난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선비가 찾아와 지방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120칸의 한옥이 건축된 것이다. 말하자면은 선교장은 개인 살림집이자 관동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많은 예술가와 풍류가가 머문 당대 최고의 문화 살롱이었던 셈이다.

당대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의 장소, 열화당

사계절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선교장에서 눈여겨볼 곳이 세 군데 있다. 하나는 당대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이 묵었던 큰 사랑채, 열화당(悅話堂)이다. 이곳은 방이 3개에다 대청마루가 6칸이나 된다. 사랑채라고 하기엔 다소 큰 규모다. 열화당은 이내번의 손자인 이후가 1815년에 지은 건물이다. 특히 사랑채 이름인 열화당은 보통 양반 가옥에서 볼 수 없는 편액이다. 조선 시대 선비들은 대개 유교의 충효(忠孝) 사상을 바탕으로 사랑채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열화당은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한 구절인 “친척과 정담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고, 거문고 타고 글을 읽으며 즐기니 근심이 사라지네.”에서 딴 것이다. 즐겁게 이야기하는 집, 열화당은 엄숙함과 긴장감 대신에 지극히 인간적인 정감이 전해오는 사랑채 이름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입신양명과 출세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만나 즐겁게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당호이다. 무엇보다 이 집에서 재미있는 요소는 손님을 대하는 것이다. 가장 고급 손님은 사랑채이자



7월 중순 붉은 백일홍과 어우러진 활래정의 모습



은행나무와 소나무가 포근하게 감싼듯한 선교장 전경



하얀 눈으로 뒤덮힌 선교장의 겨울 풍경

응접실인 열화당을, 중급 손님은 중사랑을, 그리고 하급 손님은 행랑채에 모신다. 지나가는 과객의 학문과 사람 됨됨이를 시험해서 아주 고명한 선비는 열화당, 식견이 높은 사람은 중사랑, 평범한 과객은 행랑채에 모셨다. 열화당에 모신 선비는 몇 달간 유숙하면서 집주인과 문화예술에 대해 담론을 나눴고, 떠날 때는 옷 한 벌과 노잣돈을 받았다. 방이 10개인 중사랑에 묵은 선비는 열화당의 손님보다 머무는 날짜와 대접이 조금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행랑채에서 지낸 과객은 보통 2-3일 정도 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손님이 눈치 없이 오래 머물게 되면 선교장의 집주인은 손님의 밥상에 국과 밥그릇을 바꿔 놓거나 반찬의 위치 등을 엿갈리게 놓아 손님이 떠나야 함을 알려 줬다고 한다. 몇 달 동안 융성한 대접을 받은 과객은 주인의 표시에 당연히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정처 없이 또 다른 길을 떠났다고 한다. 선비들의 격조 높은 풍류와 사람을 대접하는 세련된 멋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담한 정자와 네모 반듯한 연못이 아름다운 활래정

사랑채 열화당 다음으로 눈길을 끄는 곳은 선교장 입구에 조성된 활래정(活來亭)이라는 아담한 정자와 네모 반듯한 연못이다. 성리학 이념인 천원지방(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사상을 담은 작은 연못에는 여름철이

면 붉은 연꽃이 속내를 드러내고, 활래정 주변에는 또 다른 붉은 꽃, 백일홍이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춤을 춘다. 바람도 잠시 쉬었다가 가는 활래정은 창덕궁의 부용정처럼 연못에 두 다리를 담근 채 서 있다.

그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교장을 어느 때 가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가도 좋다. 봄이면 벚꽃과 진달래로 물들고, 여름철이면 붉은 연꽃과 백일홍이 선교장의 운치를 증폭시킨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는 샛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붉은 단풍이 어우러지고 겨울철이면 강원도답게 하얀 눈으로 덮인 선교장이 마치 선계(仙界)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선교장은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에 따라 방문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과 한옥이 어우러진 소나타를 감상하게 된다.

선교장을 지키는 수호신 금강송 '벽송'

마지막으로 선교장에서 빼놓지 말고 꼭 봐야 할 것이 선교장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다. 보통 선교장 내부만을 둘러보는데 선교장을 둘러싼 야트막한 산등성이를 따라 난 산책로를 걸어보자. 산책로 주변에는 300여 년 된 금강송이 오래 묵은 한옥, 선교장을 마치 수호신처럼 지키고 서 있다. 선교장과 숲의 궤적을 함께 한 금강송은 선교장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벽송'이라고 부른다.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선교장의 겨울풍경은 너무나 소담스럽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선교장.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옥의 진면목이다.

OBLIGE CLUB

글쓴이 이태훈 작가는 스포츠 서울과 월간조선에서 10여년 간 기자로 지냈으며, 현재는 매일경제신문 여행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한황실문화원 문화예술분과 운영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저서로는 <끌리다 거닐다 홀리다>, <한옥-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등이 있다.

HEALING FOOD

자연 속 힐링 푸드

버섯을 이용한 보양식

신들의 음식이라 불리며 우리 인체에 많은 도움을 주는 버섯과 콜라겐, 단백질, 무기질 등이 풍부해 허약한 체질이나 중장년층의 원기회복에 좋은 한우사골을 혼합한 버섯곰탕을 소개해 본다.

자료협조 최종인 (블루마운틴CC 셰프)

홍천에 위치한 소뿔산 자락 765m에 위치한 골프장의 특성을 살리고, 블루마운틴CC의 컨셉인 '힐링'을 모토로 하여 메뉴개발을 하던 중 인근 지역주민의 권유로 다양한 버섯을 접하게 되어 이 버섯을 이용한 메뉴를 구상하게 되었다.

특히, 능이버섯과 자연송이의 군락지가 지척에 있어 원재료의 공급이 수월한 점도 메뉴화하는데 어렵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HEALING FOOD RECIPE



능이버섯 돌문어 숙회 (4인)

재료 능이버섯(200g), 돌문어 1마리(700g), 참기름/소금, 초장, 와사비간장

방법 능이버섯은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은 후 데쳐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놓고, 돌문어는 소금으로 문질러 닦은 후 끓는 물에 데쳐 건져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접시에 능이버섯과 함께 보기 좋게 담아 완성한다.

홍천 소뿔산 버섯곰탕 (1인)

재료 사골육수(사골육수 300ml, 국간장1/2tsp, 후추, 소금은 간을 맞추는 정도로 준비)

방법 종류별 버섯 10g(새송이, 느타리, 능이, 자연송이, 만가닥, 백만송이, 백목이 등)을 준비한다. 위의 재료를 혼합하고 끓으면 썩갓 1~2잎을 올려 마무리한다.



HEALING FOOD RECIPE TIP

TIP 01 능이버섯은 냉동시켜 보관해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TIP 02 문어를 부드럽게 삶기 위해서는 무로 살짝 두드려서 삶아야 한결 부드러워진다.

능이버섯의 효능

소화불량개선, 항암효과 면역력 강화, 기관지 기능 개선 등의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돌문어의 효능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 간의 해독작용으로 피로회복기능, 인슐린 분비촉진으로 당뇨에 좋으며 콜레스테롤을 저하 및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생활의 품격

음식을 즐기는 방법 테이블 매너

지난 2015년은 ‘먹방’과 ‘룩방’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단 2015년만의 트렌드는 아니지만 몇 년간 지속된 이 열풍이 거의 극에 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제 먹는 것은 더 이상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글 황정선 (이미지공작소 대표)



먹는 것을 단순한 생존 차원의 에너지 충전으로 여길 때는 배고픈 것과 배부른 것,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지만 먹는 것이 문화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기를 즐기는가?’ 라는 생각이 담겨 있어야 한다. 따라서 먹는 행위가 적어도 배만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매너가 요구되는 문화 행위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먹는 것을 배를 불리는 행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좋은 테이블 매너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를 부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먹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닌 기쁨을 추구하는 행위로 바뀌었을 때 테이블 매너의 시작은 ‘천천히, 요리를 음미하면서 즐겨라!’가 된다. 따라서 음식 앞에서 이 음식의 유래는 어떻고, 어떻게 해서 맛이 나는지 등등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즐길 줄 아는 것이야말로 테이블 매너의 기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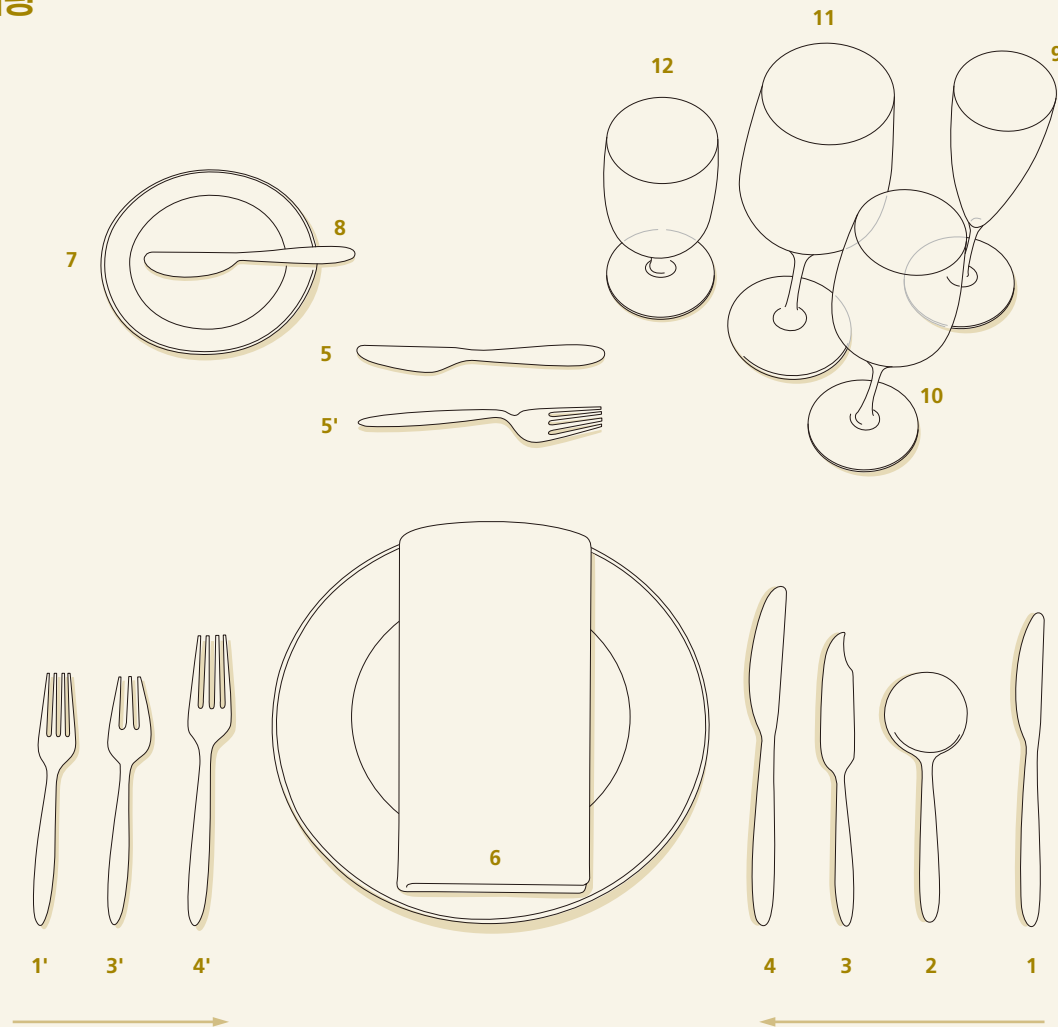
중요한 문화적 차이의 지표

식탁에서의 세련된 매너는 부르디외(P. Bourdieu)의 개념으로는 ‘문화 자산’에 속한다. ‘문화 자산’은 특권층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며 타 계급과의 자신을 구분하는 방편이다. 즉 테이블 매너는 계급적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차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류계급은 식사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른 계급과 차이를 추구했다. 만약 다른 계급이 그것을 따라서 하면 이들은 또 다른 차이를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흥 부르주아들이 값비싼 양념을 섞어 요리를 하기 시작하자, 이들 상류층은 양념을 빼고 요리하기 시작했다. 식사문화는 이처럼 상류층은 차별화를 추구하고 나머지 계층은 동질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지 않던가? 역사 속의 상류계급이 권력과 음식의 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아하고 세련된 식사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세프 전성시대를 넘어서면 식사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상류층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감한다.

즐거운 식사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

테이블 매너는 일상의 식사를 보다 풍족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음미하기 위한 것이다. 매너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식사를 위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자. 테이블 매너란 누구라도 기

폴코스 테이블 세팅



1&1' 전채요리 나이프 & 포크
Appetizer Knife & Fork

2 수프 스푼
Soup Spoon

3&3' 생선요리 나이프 & 포크
Fish Knife & Fork

4&4' 고기요리 나이프 & 포크
Steak Knife & Fork

5&5' 디저트요리 나이프 & 포크
Dessert Knife & Fork

6 냅킨
Napkin

7 빵 접시
Bread Plate

8 버터 나이프
Butter Knife

9 샴페인 플루트 잔
Champagne Flute Glass

10 화이트 와인 잔
White Wine Glass

11 레드 와인 잔
Red Wine Glass

12 워터 글라스
Water Glass

품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짜여 있다. 만약 잔을 엎어버리는 등의 실수가 있으면 동석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매너가 깔끔하면 사전에 실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식사는 혼자 하는 것보다 상대가 있을 때 즐거운 법이다. 식사를 한층 더 즐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너는 몸가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식사 자리에 맞는 즐거운 대화를 나눌 마음가짐을 갖고,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매너의 일종이다. 테이블 매너를 의식하면서 식사하면, 모든 몸놀림이 아름답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식당 직원에게도 세련된 매너로 대하고 요리를 즐기면서 정갈하게 먹으면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먹는 법을 알 수 없는 요리가 나올 때는 종업원에게 주저하지 말고 물어본다. 또 메뉴를 주문했을 때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라고 묻는다면 “주방장 추천 메뉴는 무엇인가요?”라고 셰프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메뉴야말로 그날 주방장이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들 음식이기 때문이다. 복장에 관한 한은 레스토랑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다. 아무리 아웃도어 룩이 대세라고 해도 그런 차림으로 호텔이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 드나들 수는 없는 법이다. 혹시 상대방이 매너를 위반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대를 위한 배려이고 매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왕처럼 대접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신사숙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사숙녀란 특별한 날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는 미리 전화를 걸어 예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약을 마치고 나면 전화를 끊기 전에 지배인의 이름을 미리 물어보고,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해두는 것도 센스있다. 예약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변경이나 취소할 상황에도 예약할 때만큼 정중히 알려줘야 한다.

테이블 매너는 '문화자산'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말하길 테이블 매너는 치아 교정 과도 같아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 사람의 출신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니 훌륭한 테이블 매너는 신사숙녀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다. 특별한 날 찾게 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른 사람의 빵 접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물잔이 어느 것인지, 샐러드에는 어떤 포크를 집어야 하는지 머뭇거리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평소 테이블 매너에 관한 몇 가지 룰만 알아두면 그럴 염려가 없다. 무언의 약속처럼 정해져 있는 룰을 기억하고 예의를 지키면 좀 더 여유 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이제껏 테이블 매너에 관심 없이 먹는 데만 급급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테이블 매너를 배워보자.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을 우아하고 세련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테이블 매너야말로 문화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글쓴이 황정선 대표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이미지 공작소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품격 입는 남자〉, 〈나는 오늘이 제일 예쁘다〉 등이 있다.



공연속으로

연극 렛미인

재능 있는 배우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도전과 최고의 찬사를 받은 오리지널 스태프들의 수준 높은 무대로 완성될 연극 <렛미인>. 올 겨울, 뱀파이어 소녀와 외톨이 소년의 매혹적이고도 슬픈 사랑이야기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서비스팀 자료 협조 신시컴퍼니 / 인터파크

전 세계를 매혹시킨 슬픈 사랑 이야기

오스카는 또래들에게 학교폭력으로 시달리는 결손 가정의 외로운 10대 소년이다. 오스카는 도시 꼬트머리의 주택 개발 단지에서 어머니하고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변에서 잔인한 살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다.

일라이는 오스카의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어린 소녀다. 그녀는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낮에는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둘은 곧 서로 마음이 통하며 헌신적인 친구 사이로 발전한다.

하지만 일라이는 수백 년을 살아온 뱀파이어 소녀라는 것. 둘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보여줄까?

연극 최초 레플리카(Replica) 프로덕션 공연

연극 <렛미인>은 연극에 있어 최초의 레플리카 프로덕션(Replica Production - 원작 프로덕션의 모든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공연 형태)으로, 오리지널 연출 존 티파니를 비롯해 해외 스태프들이 직접 본 공연을 진두지휘 한다.

또한, 600대 1의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충무로 괴물 신인 박소담을 비롯하여 이은지, 오승훈, 안승균 등 20대 초반의 재능있는 신인 배우들과 영화와 연극을 넘나드는 실력과 중견배우 주진모가 캐스팅되어 한층 더 기대를 모은다.

외톨이 소년 오스카와 끝나지 않는 시간 속에 갇힌 뱀파이어 소녀 일라이. 일라이를 사랑하는 또 한 남자 하칸의 슬픈 사랑 이야기와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팀의 조합으로 완성된 연극 <렛미인>은 아름다운 감성으로 관객을 매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OBLIGE CLUB

렛미인

| 공연 장소 | 예술의 전당 CJ토월극장
| 공연 기간 | 2016년 1월 21일 ~ 02월 28일 (46회 예정)
| 문 의 | 신시컴퍼니 ☎ 02-577-1987

GIFT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연극 <렛미인> 관람권 (1인 2매)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응모요령은 95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순위 펀드명(국내주식형)

1년 수익률

BM

1위 미래에셋 TIGER헬스케어ETF **71.93%** 71.24%
(1년) (2년 수익률 62.16% 4위 / 3년 수익률 79.23% 5위)

5위 미래에셋 성장유망중소형주펀드 **32.14%** 18.97%
(1년) (2년 수익률 51.45% 12위 / 3년 수익률 64.62% 9위)

6위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펀드 **32.05%** -4.13%
(1년) (2년 수익률 60.88% 7위 / 3년 수익률 74.12% 6위)

8위 미래에셋 TIGER중국소비테마ETF **24.72%** 24.02%
(1년) (2년 수익률 41.71% 23위 / 3년 수익률 48.34% 22위)

※ 비교대상 펀드 수 : 1년 847개, 2년 775개, 3년 730개 대상(설정이후 3년 이상 경과 펀드) ※ 자 펀드 기준

2015년을 빛낸 펀드와 ETF, 미래에셋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4.13%(1년 수익률)를 기록한 동안, 미래에셋 펀드와 TIGER ETF는 달랐습니다.
다양한 섹터, 다양한 국가의 펀드와 ETF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십시오.



글로벌 자산관리

42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48 핫상품

52 ETF 이야기

56 자산관리 이슈진단

60 채권투자 노하우

64 해외주식 톨아보기

1위 미래에셋 TIGER헬스케어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1년	2년	3년	설정이후
TIGER헬스케어	71.93%	62.16%	79.23%	87.00%
BM지수	71.24%	63.48%	83.61%	92.61%
상위%순위	0.1%	0.5%	0.7%	

6위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1년	2년	3년	설정이후
가치주포커스	32.05%	60.88%	74.12%	323.06%
Class C1	29.09%	53.73%	65.90%	65.90%
BM지수	-4.13%	-3.43%	-2.67%	97.89%
상위%순위	0.7%	0.9%	0.8%	

5위 미래에셋 성장유망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1년	2년	3년	설정이후
성장유망중소형주	32.14%	51.45%	64.62%	494.19%
Class C1	29.03%	44.82%	53.73%	379.76%
BM지수	18.97%	31.01%	36.44%	192.24%
상위%순위	0.6%	1.5%	1.2%	

8위 미래에셋 TIGER중국소비테마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1년	2년	3년	설정이후
TIGER중국소비테마	24.72%	41.71%	48.34%	90.33%
BM지수	24.02%	39.88%	45.54%	83.86%
상위%순위	0.9%	3.0%	3.0%	

■ 출처: 제로인 ■ 기준일: 2015.09.30 ■ 과거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6655호(2015.10.14~2016.03.29)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
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2016년 자산배분전략 Don't Fight Uncertainty

한 해를 놓고 보면 채권보다 주식이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 관리에 무게를 뒀야 한다. 주식에서는 신흥국보다 선진국을 선호하는 스탠스를 유지한다. 신흥국 자산과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 리스크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글 박건엽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센터
글로벌자산배분팀장
✉ gunyoub.park@miraeasset.com

드디어 지난달 미국 연준(Fed)이 10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유동성의 위축이라는 부정적 측면보다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벤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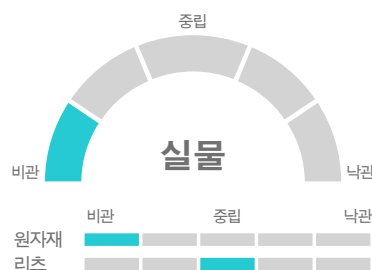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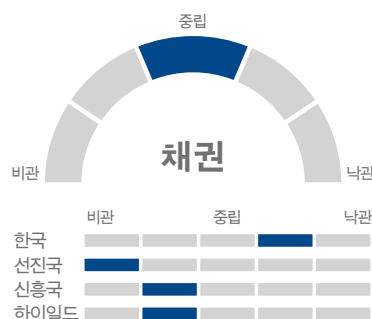
이처럼 연준이 금리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유로 존과 일본, 중국의 중앙은행은 계속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을 두고 ‘그레이트 다이버전스(Great Divergence)’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통화정책 다변화로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여전히 괜찮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정책의 ‘대균열’이라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공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긴 안목에서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채권보다 주식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후 유가 급락이 원자재 시장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시장을 흔들며 불확실성을 키운 데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변동성 관리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에 맞서거나 이에 베팅하기보다 확실해 보이는 대상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본다.

주식에서는 선진국 선호 스탠스 유지

주식에서는 신흥국보다 선진국을 선호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 등장이 가능하고, 그간의 정책 효과로 실물 경기 회복이 감지되고 있으며 기업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유럽 주식을 가장 선호한다. 다만, 전체 포트폴리오 상 유럽보다 미국 주식의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 이는 미국 주식이 유럽 주식에 비해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은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해 두 세 차례 인상하는 데 모아져 있으나, 지난달 공개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점도표대로라면 네 차례 인상도 가능하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경우에도, 반대로 그 속도가 기대보다 훨씬 느린 경우에도 펀더멘털을 갖춘 미국이 가장 안정적 투자처가 될

Dashboard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 발행 외의 채권에 대해 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중도매매시 시장금리 등에 따라 원금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조차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금융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주식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94~1995년, 1999~2000년, 2004~2006년 연준의 기초적 금리 인상 시기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안정적 흐름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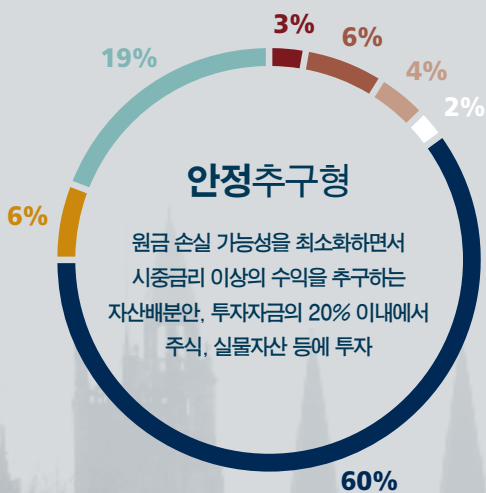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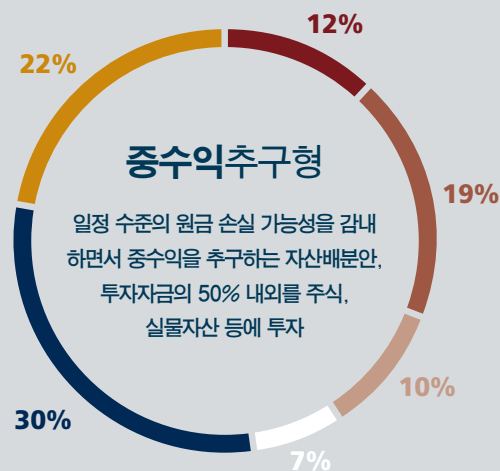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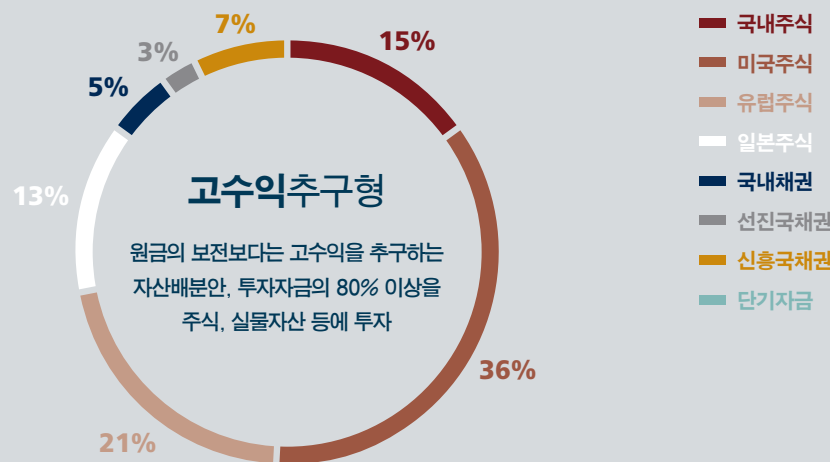
신흥국 자산은 펀더멘털 양호한 국가 중심으로 접근할 것

신흥국 자산은 주식과 채권 모두 신용 리스크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분산 차원에서 신흥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원자재 수출국보다는 수입국이 유리해 보인다. 코스피 기준으로 올 해에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지는 않으나, 여타 신흥국 대비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지난해에 비해 수출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한국 주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신흥국 채권은 일정 수준의 Yield Pick-up 차원에서 접근하되 한국을 포함한 펀더멘털이 양호한 지역/국가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하이일드, 신용 리스크 관리에 치중해야

한편, 하이일드 채권은 스프레드 확대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에너지/소제 섹터 기업들의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높은 데 따른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과거 금리 인상기에 주식과 유사한 속성을 띠는 하이일드 채권이 선전했던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신용 리스크 관리에 치중해야 할 것 같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기업들이 대거 채권 발행에 나선 결과 현재 에너지 기업들, 신흥국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금융불안 당시 수준에 근접할 정도이다. 유가 하락에 따른 신용 리스크 확대, 시장 유동성 고갈 우려 등을 감안해 당분간 보수적으로 대응하되 에너지/소제 섹터를 제외한 유럽 기업들의 회사채의 경우 투자 가능한 시기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2016년 1월)



자산군별 시장전망 및 추천상품

주식

- 불확실성과 싸우거나 이에 베풀하기보다 확실해 보이는 대상에 집중하는 전략
- 2016년 주식은 긍정적이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국내주식	•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 Best Selection 자문형랩 (쿼드) • 미래에셋 Best Selection 자문형랩 (V&S)
선진국주식	•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랩 • 미래에셋 글로벌 그로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슈로더 유로 증권투자신탁A(주식) • 프랭클린 재팬 증권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 다이나믹 일본밸류 중소형 증권투자신탁1호(H)(주식)
신흥국주식	• 미래에셋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랩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투자신탁A(주식)

채권

- 고수익 채권은 가격 메리트 보다 신용 리스크 관리에 무게 둘 필요
- 한국을 포함해 펀더멘털이 양호한 지역/국가 대상 중심의 선별적 대응

국내채권	• 흥국 멀티플레이 증권투자신탁4호(채권) • 경기지역개발채권
해외채권	•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대체투자

구조화상품	• Hi-Five ELS
멀티에셋상품	• 미래에셋 글로벌 자산배분 ETF랩(고수익 포트폴리오) • 미래에셋 글로벌 자산배분 ETF랩(중수익 포트폴리오) •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20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 스마트롱숏30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유리 트리플알파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하이 공모주플러스10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KB밸류초이스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GLOBAL ASSET ALLOCATION MODEL PORTFOLIOS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JAN - FEB 2016

■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 투자 상품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모델 포트폴리오는 매월 당사가 자산배분위원회에서 대내외 투자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 추천상품은 적합성과 상품성 등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매력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선정 /추천합니다.
■ 랩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입니다.
■ 랩카운트 계약 전에 투자대상, 운용 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등에 관한 약관, 계약 권유 문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랩카운트는 위탁매매수수료는 없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 등은 고객님이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 발행 외의 채권에 대해 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중도매매시 시장금리 등에 따라 원금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 분리파세(33%) 신청시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 발행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시에만 분리 파세 신청 가능합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에도 공정가액에서 헷지자산 청산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파생결합증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신용등급AA, 한국신용평가, 2015년 8월 7일)에 따라 상환되며 발행사의 부도 또는 파산 시 원금손실위험이 있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파생 결합증권)의 발행상품의 기초자산 및 손익 구조는 상기와 다를 수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 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 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인분배정합니다.
■ 이 안내문은 청약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파세기준 및 파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보수,수 수수료,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분기 연금저축계좌 추천상품

* 본 연금저축계좌 추천상품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장기투자를 계획하는 투자자를 위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투자성향별 자산배분전략은 가까운 영업점 웰스 매니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구분	주요내용
국내주식	-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 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선진국주식	- 미래에셋 글로벌그레이트 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 연금 글로벌 그로스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PRS - 슈로더 유로 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프랭클린 연금재팬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 다이와 일본밸류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C-P
신흥국주식	- 미래에셋 아시아 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C-P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채권

구분	주요내용
국내채권	흥국 멀티플레이 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C-P
해외채권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C-P

대체투자

구분	주요내용
멀티에셋상품	-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20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C-P -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 스마트홍츠30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C-P - 유리 트러플알파 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하이공모주 플러스10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C-P2 - KB 밸류초이스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P

■ 연금 모델 포트폴리오는 매분기 당사가 자산배분위원회에서 대내외 투자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 추천상품은 적합성과 상품성 등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매력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선정/추천합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보수·수수료·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 : 최소 3년이상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금 수령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

구분	종류 A	종류 C1
선회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
판매보수	연 0.70%	연 1.50%
운용보수	연 0.73%	연 0.73%
보수 신탁보수	연 0.04%	연 0.04%
사무관리	연 0.03%	연 0.03%
총 보 수	연 1.50%	연 2.3%
환매 수수료	-	-
환매 15시이전	제2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방법 15시정각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미래에셋 Best Selection 자문형립(쿼드)

구분	주요내용
운용전략	종목선정효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초과 수익 추구, 대형주 / 중소형주 / 성장주 / 가치주 균형투자 원칙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축
투자대상	국내 상장 주식, ETF, RP등
최소가입금액	3천만 원
가입기간	1년이상 권장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운용주제	미래에셋증권 WRAP운용팀 / 자문 : 쿼드 투자자문
투자일임수수료	연 1.9%(분기 0.475%후취)
위탁매매 수수료	없음
입출금가능여부	가능 (단, 최소가입금액 이하 출금 제한)
환매방법	환매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지급
비고	투자일임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거래세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

미래에셋 글로벌 그로스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종류 A	종류 C1
선회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
판매보수	연 0.70%	연 1.30%
운용보수	연 0.70%	연 0.80%
보수 신탁보수	연 0.05%	연 0.05%
사무관리	연 0.03%	연 0.03%
총 보 수	연 1.58%	연 2.18%
환매 수수료	-	-
환매 17시이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방법 17시정각후	제5영업일 기준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지급	

슈로더 유로 증권자투자신탁A(주식)

구분	종류 A	종류 C1
선회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2% 이내	-
판매보수	연 1.1%	연 1.50%
운용보수	연 0.85%	연 0.85%
보수 신탁보수	연 0.05%	연 0.05%
사무관리	연 0.02%	연 0.02%
총 보 수	연 2.02%	연 2.42%
환매 수수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 17시이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지급	
방법 17시정각후	제5영업일 기준으로 제10영업일에 대금지급	

미래에셋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구분	종류 A	종류 C1
선회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
판매보수	연 0.70%	연 1.30%
운용보수	연 0.30%	연 0.30%
보수 신탁보수	연 0.03%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연 0.02%
총 보 수	연 1.05%	연 1.65%
환매 수수료	-	-
환매 17시이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지급	
방법 17시정각후	제5영업일 기준으로 제10영업일에 대금지급	

※ 합성총보수비용(종류A: 연 1.9080%, 종류C1: 연2.5980%)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보수, 수수료,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분	종류 A	종류 C
선회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9% 이내	-
판매보수	연 0.48%	연 0.80%
운용보수	연 0.88%	연 0.88%
보수 신탁보수	연 0.03%	연 0.03%
사무관리	연 0.01%	연 0.01%
총 보 수	연 1.40%	연 1.72%
환매 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 15시이전	제2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방법 15시정각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종류 A	종류 C1
선회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
판매보수	연 0.80%	연 1.50%
운용보수	연 0.70%	연 0.70%
보수 신탁보수	연 0.06%	연 0.06%
사무관리	연 0.03%	연 0.03%
총 보 수	연 1.59%	연 2.29%
환매 수수료	-	-
환매 17시이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방법 17시정각후	제5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종류 A	종류 C1
선회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
판매보수	연 0.70%	연 1.20%
운용보수	연 0.10%	연 0.10%
보수 신탁보수	연 0.04%	연 0.04%
사무관리	연 0.025%	연 0.025%
총 보 수	연 0.865%	연 1.365%
환매 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1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 17시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방법 17시정각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지급	

※ 합성총보수비용(종류A: 연 1.9842%, 종류C1: 연 2.4843%)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보수, 수수료,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재팬 증권자투자신탁(주식)

구분	종류 A	종류 C1
선회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
판매보수	연 0.90%	연 0.72%
운용보수	연 0.90%	연 0.90%
보수 신탁보수	연 0.05%	연 0.05%
사무관리	연 0.02%	연 0.03%
총 보 수	연 1.87%	연 1.70%
환매 수수료	-	-
환매 15시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7영업일에 대금지급	
방법 15시정각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미래에셋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립

구분	주요내용
운용전략	아시아 지역(일본 제외)의 소비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에 주로 투자
투자대상	글로벌 주식,ETF, RP등
최소가입금액	5천만 원
가입기간	1년이상 권장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운용주제	미래에셋 자산운용(홍콩)
투자일임수수료	연 2.8%(분기 0.7%후취)
위탁매매 수수료	없음 (단, 해외주식(ETF) 투자시 매매에 따른 거래세 및 해당상품의 약관·설명서에 정한 보수, 현지 Broker Fee, 미국 Sec Fee등 당사에 귀속 되지 않는 세금과 환전비용은 투자일임 수수료와 별도로 고객부담)
환해지	없음(해외주식을 해당 통화로 보유하여 국내-해외자산간 포트폴리오 효과 추구 목적)
과세방법	· 매매차익: 양도소득세(22%) 분류과세 - 배당(분배)금: 현지세율로 원천징수, 현지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세율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기타 RP운용:이자소득세 과세, 금융소득 종합 과세 해당
환매방법	환매신청일로부터 6~7영업일 자금지급 (단, 해외주식 매도시 해당국가별 결제일 차이로 출금가능일에 차이 날 수 있음, 현지 거래소 사정파 환전 절차에 따라 출금일 연장될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운용전략	저평가된 종목을 선정하는 '가치 투자'와 기업분할 및 합병 등을 활용한 '이벤트 드리브' 전략 추구
투자대상	국내 상장 주식, ETF, RP등
최소가입금액	3천만 원
가입기간	1년이상 권장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운용주제	미래에셋증권 WRAP운용팀 / 자문 : V&S
투자일임수수료	연 1.9%(분기 0.475%후취)
위탁매매 수수료	없음
입출금가능여부	가능 (단, 최소가입금액 이하 출금 제한)
환매방법	환매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지급
비고	투자일임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거래세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립

구분	주요내용
운용전략	글로벌 소비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채권, ETF, RP등
최소가입금액	5천만 원
가입기간	1년이상 권장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운용주제	미래에셋 자산운용(미국)
투자일임수수료	연 2.8%(분기 0.7%후취)
위탁매매 수수료	없음 (단, 해외주식(ETF) 투자시 매매에 따른 거래세 및 해당상품의 약관·설명서에 정한 보수, 현지 Broker Fee, 미국 Sec Fee등 당사에 귀속되지 않는 세금과 환전비용은 투자일임 수수료와 별도로 고객부담)
환해지	없음(해외주식을 해당 통화로 보유하여 국내-해외자산간 포트폴리오 효과 추구 목적)
과세방법	·매매차익: 양도소득세(22%) 분류과세 - 배당(분배)금:현지세율로 원천징수,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세율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기타 RP운용:이자소득세 과세, 금융소득 종합 과세 해당
환매방법	환매신청일로부터 6~7영업일 자금지급 (단, 해외주식 매도시 해당국가별 결제일 차이로 출금가능일에 차이 날 수 있음, 현지 거래소 사정파 환전 절차에 따라 출금일 연장될수 있음)

미래에셋 다이와 일본밸류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구분	종류 A	종류 C1
선회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
판매보수	연 0.72%	연 1.30%
운용보수	연 0.90%	연 0.90%
보수 신탁보수	연 0.05%	연 0.05%
사무관리	연 0.03%	연 0.03%
총 보 수	연 1.70%	연 2.28%
환매 수수료	-	-
환매 15시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7영업일에 대금지급	
방법 15시정각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투자자산탁A(주식)		
구분	종류 A	종류 C1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2% 이내	-
보수	판매보수	연 1.1%
	운용보수	연 0.85%
	신탁보수	연 0.06%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2.03%
환매 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5영업일 기준으로 제10영업일에 대금지급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플러스 증권투자자산탁1호(채권)		
구분	종류 A	종류 C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7%이내	-
보수	판매보수	연 0.50%
	운용보수	연 0.30%
	신탁보수	연 0.04%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0.86%
환매 수수료	-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7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미래에셋 글로벌 자산배분 ETF랩 (고수의 포트폴리오)	
구분	주요내용
운용전략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산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고수의 추구형)를 추종하며 정기적 자산배분을 통해 자본 이득을 추구
투자대상	글로벌 ETF, RP등(자산 편입비율 0~100%)
최소가입금액	1억 원
가입기간	1년이상 권장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운용/자문주체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센터 WRAP운용팀 /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센터 글로벌자산배분팀
투자일임수수료	연 2.0%(분기 0.5%추후)
위탁매매수수료	없음 (단, 해외주식(ETF) 투자시 매매에 따른 거래세 및 해당상품의 약관·설 명서에 정한 보수, 현지 Broker Fee, 미국 Sec Fee등 당사에 귀속되지 않는 세금과 환전비용은 투자일임 수수료와 별도로 고객부담)
입출금가능여부	가능 (단, 최소가입금액 이하 출금 제한)
환매방법	환매 신청일(해지신청일)로부터 5~6영업일 자금 입금
비고	투자일임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거래세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20 증권투자자산탁1호(채권혼합)		
구분	종류 A	종류 C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이내	-
보수	판매보수	연 0.40%
	운용보수	연 0.40%
	신탁보수	연 0.02%
	사무관리	연 0.01%
	총 보 수	연 0.83%
환매 수수료	-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에 대금지급	

유리 트리플알파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구분	종류 A	종류 C
선취판매 수수료	-	
보수	판매보수	연 0.60%
	운용보수	연 0.35%
	신탁보수	연 0.02%
	사무관리	연 0.01%
	총 보 수	연 0.98%
환매 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에 대금지급	

흥국 멀티플레이 증권투자자산탁4호(채권)		
구분	종류 C	
선취판매 수수료	-	
보수	판매보수	연0.2205%
	운용보수	연 0.0945%
	신탁보수	연 0.02%
	사무관리	연 0.015%
	총 보 수	연 0.35%
환매 수수료	-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3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경기지역개발채권		
구분	15~12	(기준일 2015. 12. 31)
이자지급방법	연복리	
상환등급	초저위험 5등급	
최소가입금액	1만 원	
만기일	2020-12-31	
매수이익률	1.95%(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법인투자이익률	세전 연 2.10%	
개인투자이익률 (환산수익)	세전 연 2.34%(일반과세환산)	
※ 개인 환산수익률은 세후투자이익률에 환전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전 으로 역산 (세후수익률/(1-원천징수 세율))한 단위 연 수익률입니다. (일반과세：15.4% 가정)		

구분	주요내용
투자포인트	·조기상환 평가일에 일정조건 이상이면 정해진 수익금액 지급 ·기초자산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 다양한 상품선택 가능
기초자산	S&P500,HSCEI, STOXX50 Hi-Five ELS 등
지급조건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두 최소기준가격 대비 일정 수준 이내로 하락 하지 않으면 수익을 지급
가입금액	최초가입금액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 모집 (모집금액이 발행가액 초과시 안분배정)
상환만기 / 조기상환	3년 / 6개월 주기로 조기상환 기회 부여
손실조건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 대비 K(하한 배리어) 아래로 내려간 경우
중도상환	·6개월 미만 시 공정가액의 90% 이상 지급, ·6개월 이상 시 공정가액의 95% 이상 지급

미래에셋 글로벌 자산배분 ETF랩 (중수의 포트폴리오)	
구분	주요내용
운용전략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산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중수의 추구형)를 추종하며 정기적 자산배분을 통해 자본 이득을 추구
투자대상	글로벌 ETF, RP등(자산 편입비율 0~100%)
최소가입금액	1억 원
가입기간	1년이상 권장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운용/자문주체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센터 WRAP운용팀 /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센터 글로벌자산배분팀
투자일임수수료	연 2.0%(분기 0.5%추후)
위탁매매수수료	없음 (단, 해외주식(ETF) 투자시 매매에 따른 거래세 및 해당상품의 약관·설 명서에 정한 보수, 현지 Broker Fee, 미국 Sec Fee등 당사에 귀속되지 않는 세금과 환전비용은 투자일임 수수료와 별도로 고객부담)
입출금가능여부	가능 (단, 최소가입금액 이하 출금 제한)
환매방법	환매 신청일(해지신청일)로부터 5~6영업일에 자금 지급
비고	투자일임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거래세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

미래에셋 스마트통ս30 증권투자자산탁1호(채권혼합)		
구분	종류 A	종류 C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4% 이내	-
보수	판매보수	연 0.30%
	운용보수	연 0.45%
	신탁보수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0.80%
환매 수수료	-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에 대금지급	

KB 밸류초이스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구분	종류 A	종류 C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7% 이내	-
보수	판매보수	연 0.40%
	운용보수	연 0.38%
	신탁보수	연 0.03%
	사무관리	연 0.015%
	총 보 수	연 0.825%
환매 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에 대금지급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 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자산탁1호(주식)		
구분	종류C	
보수	판매보수	연 0.95%
	운용보수	연 0.54%
	신탁보수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1.54%
환매 방법	15사이전 제2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15시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미래에셋 연금 글로벌 그로스 증권투자자산탁1호(주식)		
구분	종류C	
보수	판매보수	연 0.96%
	운용보수	연 0.66%
	신탁보수	연 0.05%
	사무관리	연 0.03%
	총 보 수	연 1.70%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5영업일 기준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프랭클린 연금재팬증권투자자산탁(주식)		
구분	종류C	
보수	판매보수	연0.96%
	운용보수	연 0.66%
	신탁보수	연 0.05%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1.69%
환매 방법	15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7영업일에 대금지급 15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연금증권투자자산탁(주식)		
구분	종류C	
보수	판매보수	연 0.95
	운용보수	연 0.65%
	신탁보수	연 0.04%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1.66%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5영업일 기준으로 제10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20 증권투자자산탁1호(채권혼합)C-P		
구분	종류C-P	
보수	판매보수	연 0.64%
	운용보수	연 0.40%
	신탁보수	연 0.02%
	사무관리	연 0.01%
	총 보 수	연 1.07%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유리 트리플알파 연금저축증권투자자산탁 (주식혼합)		
구분	종류C	
보수	판매보수	연 0.85%
	운용보수	연 0.43%
	신탁보수	연 0.025%
	사무관리	연 0.015%
	총 보 수	연 1.32%
환매 방법	15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15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연금증권투자자산탁1호(주식)		
구분	종류C	
보수	판매보수	연 0.95%
	운용보수	연 0.54%
	신탁보수	연 0.03%
	사무관리	연 0.01%
	총 보 수	연 1.53%
환매 방법	15사이전 제2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15시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PRS		
구분	종류PRS	
보수	판매보수	연 0.60%
	운용보수	연 0.10%
	신탁보수	연 0.04%
	사무관리	연 0.025 %
	총 보 수	연 0.765%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합성총보수비용 종류PRS: 연1.8843%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보수, 수수료,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다이와 일본밸류중소형 증권투자자산탁1호(H)(주식)C-P		
구분	종류C-P	
보수	판매보수	연 0.72%
	운용보수	연 0.90%
	신탁보수	연 0.05%
	사무관리	연 0.03%
	총 보 수	연 1.70%
환매 방법	15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7영업일에 대금지급 15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합성총보수비용 종류C-P: 연2.2580%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보수, 수수료,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흥국 멀티플레이 증권투자자산탁4호(채권)C-P		
구분	종류C-P	
보수	판매보수	연 0.2%
	운용보수	연 0.0945%
	신탁보수	연 0.02%
	사무관리	연 0.015%
	총 보 수	연 0.3295%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자산탁1호(주식혼합)		
구분	종류C-P	
보수	판매보수	연 0.90%
	운용보수	연 0.43%
	신탁보수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1.38%
환매 방법	15사이전 제2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15시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하이공모주 플러스10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C-P2		
구분	종류C-P2	
보수	판매보수	연 0.60%
	운용보수	연 0.37%
	신탁보수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1.02%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미래에셋 글로벌그레이트 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산탁1호(주식)		
구분	종류C	
보수	판매보수	연 0.96%
	운용보수	연 0.66%
	신탁보수	연 0.06%
	사무관리	연 0.03%
	총 보 수	연 1.71%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5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슈로더 유로 연금증권투자자산탁(주식)		
구분	종류C	
보수	판매보수	연 0.95%
	운용보수	연 0.65%
	신탁보수	연 0.04%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1.66%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5영업일 기준으로 제10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미래에셋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 증권투자자산탁1호(주식-재간접)C-P		
구분	종류C-P	
보수	판매보수	연 0.96%
	운용보수	연 0.30%
	신탁보수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1.31%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9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5영업일 기준으로 제10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합성총보수비용 종류C-P: 연2.2580%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보수, 수수료,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플러스 증권투자자산탁1호(채권)C-P		
구분	종류C-P	
보수	판매보수	연 0.61%
	운용보수	연 0.30%
	신탁보수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0.96%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7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8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미래에셋 스마트통ս30 증권투자자산탁1호(채권혼합)C-P		
구분	종류C-P	
보수	판매보수	연 0.48%
	운용보수	연 0.45%
	신탁보수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총 보 수	연 0.98%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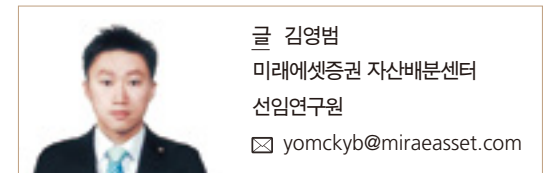
KB 밸류초이스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P		
구분	종류C-P	
보수	판매보수	연 0.82%
	운용보수	연 0.38%
	신탁보수	연 0.03%
	사무관리	연 0.015%
	총 보 수	연 1.245%
환매 방법	17사이전 제3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지급 17시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으로 제5영업일에 대금지급	
※선취판매 / 환매 수수료：없음		



지속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대안

- 롱숏펀드 -

2016년 새롭게 투자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 변동성 장세의 투자 대안으로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펀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어느덧 2015년 을미년(乙未年)이 저물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새해가 밝았다. '병(丙)'이 상징하는 색상은 붉은색이고 '신(申)'이 상징하는 동물은 원숭이라서 2016년을 '붉은 원숭이의 해'라 부르기도 한다. 국내 증시에서 붉은색은 상승을 의미하지만 올해 국내 증시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의 흐름 역시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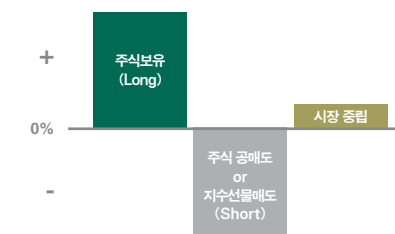
2016년 새롭게 투자계획을 세우는 투자자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이후 큰 관심을 받았던 '롱숏펀드'가 다시 부각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롱숏펀드란?

최근 몇 년간 코스피는 1,800~2,20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매수후보유(Buy&Hold) 전략의 펀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비해 롱숏펀드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매수하고(Long),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공매도(Short)하여 주가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시장 중립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펀드이다. 대부분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형태로 설정되며, 기본적으로 채권을 30~70% 편입하여 안정적인 채권수익을 추구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 롱숏전략을 가미한다.

롱숏전략 예시



롱(Long)

-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매수
- 주가 상승 시 이익, 주가 하락 시 손실

숏(Short)

-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공매도*
- 주가 상승 시 손실, 주가 하락 시 이익

*공매도란 :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동일 증권이 하락하면 다시 매수하여 상환하는 거래

롱숏펀드의 3가지 메리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들은 ‘시중금리+α’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글로벌인컴펀드, 글로벌자산배분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옮겨 다녔다. 이러한 상품들과 비교하여 롱숏펀드는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 것일까?

먼저, 롱숏펀드는 가입 시점에 크게 구매 받지 않고 낮은 변동성으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주식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커져 투자시기를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 롱숏펀드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숏부분(공매도) 수익이 롱부분 손실보다 클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로 국내주식 및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롱숏펀드의 경우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차익이 비과세가 되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대부분 수익이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상품에 비해 절세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롱숏펀드와 유사한 전략을 실행하는 헤지펀드의 경우 최소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롱숏펀드는 가입 제한이 없어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가 용이하다.

롱숏펀드 가입 시 고려할 점

2013년 이후 롱숏펀드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여러 운용사에서 다양한 롱숏펀드가 출시되었다. 하지만 롱숏펀드도 각 운용사마다 성과 차이가 벌어지며 투자자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그럼 롱숏펀드를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롱숏펀드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매수해 수익을 얻고, 반대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매도해 수익을 얻는 전략을 가진 펀드다. 언뜻 보면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수익을 낼 것 같지만 만약 펀드 매니저의 예상과 달리 주가가 움직일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펀드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펀드의 경우 지난해 변동성이 급증하는 섹터를 피하고 내재적 가치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원칙에 부합하는 종목만을 선별하여 투자했다. 펀드별로 성과와 변동성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순투자비중(Long 투자비중에서 Short 투자비중을 뺀 것으로 주식에 순수하게 노출

된 비중)에 있는데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펀드는 2015년 6월 이후 순투자비중을 19%로 낮춰 시장 위험을 줄였다(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2015년 6월 30일 기준, 출처: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펀드는 주식과 채권 투자비중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따라서 투자자의 기대수익과 위험감내 수준에 따라 적합한 펀드를 골라 투자할 수 있다.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펀드

	스마트롱숏 70 (주식) Fixed Income Equity 70%	스마트롱숏 50 (혼합) Fixed Income 40~50% Equity 50~60%	스마트롱숏 30 (채권혼합) Fixed Income 70% Equity 30%
주식 비중	Long Position 40% Equity 30%	Long Position 30~40% Equity 20%	Long Position 20% Equity 10%
롱숏 전략	Short Position 40%	Short Position 30~40%	Short Position 20%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A 선취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4%. 총보수 연 0.8%(운용 연 0.45%, 판매 연 0.3%, 신탁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환매수수료는 없음.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17시 경과후 제5영업일)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A 선취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 총보수 연 1.15%(운용 연 0.55%, 판매 연 0.55%, 신탁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환매수수료는 없음.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15시 경과 후 제3영업일)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15시 경과후 제4영업일)

미래에셋소특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C 선취수수료 없음. 총보수 연 1.13%(운용 연 0.38%, 판매 연 0.7%, 신탁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환매수수료는 없음.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15시 경과 후 제3영업일)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15시 경과후 제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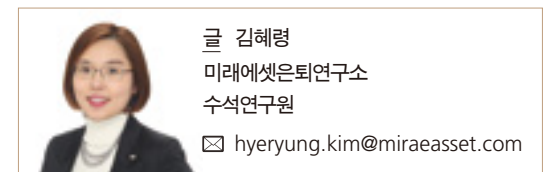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TF의 성장과 진화, 투자자들을 매료시키다

뮤추얼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인덱스 펀드 등은 금융시장 역사에서 혁신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상품들이다. 최근 들어 등장한 금융 상품 중 혁신적이며 대중적인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ETF(상장지수펀드)'다. 최근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그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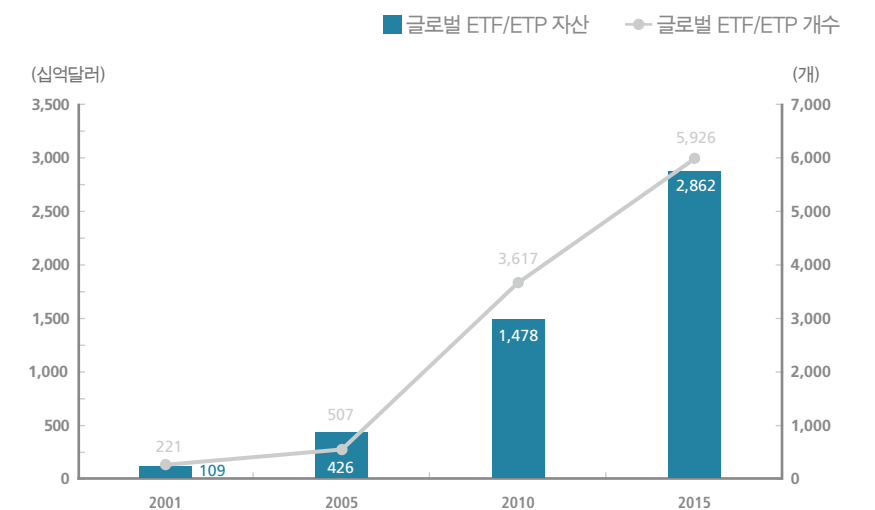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Global Investor 2015 가을호



1992년 미국 아메리카증권거래소의 네이션 모스트가 처음 만들어낸 ETF는 2008년 금융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년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 ETF와 ETP* 규모는 2조 9천 억 달러(약 3천 4백 조원, ETFGI 2015년 8월 기준)로 성장했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2002년 ETF가 국내에서 설정된 첫째 순자산 3천억 원 규모를 달성한 이후 최근까지 10여 년 만에 21조 원 규모(ETFGI 2015년 8월 기준)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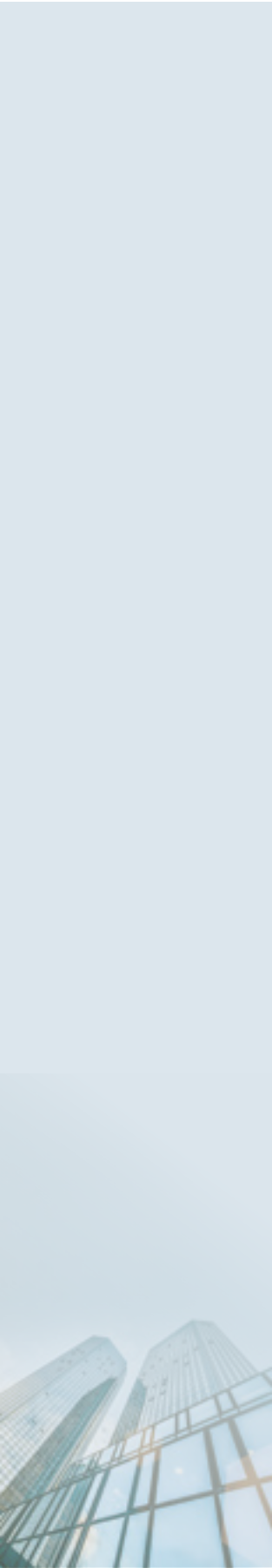
* ETP는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으나 펀드 이외에 신탁, 채권(note), DR 등의 구조를 가진 상품을 말함

글로벌 ETF/ETP 개수 및 자산규모



자료: ETFGI (2015년 8월 기준)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대상 지표(주가 등)의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대표지수에서 출발, 정교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

ETF는 주식시장 대표지수의 성과를 추종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 시작됐다. 1993년 최초 ETF는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S&P500의 성과를 추종하는 펀드였으며, 지금도 순자산 규모로 가장 큰 ETF 중 하나이다. 초기 ETF는 전문투자자들이 투자 헤지(hedging)를 하거나 현금을 단기적으로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에 즉시 투자해야 할 때 주로 활용했다. 하지만 ETF는 빠르게 그 영역을 넓히고 창조적 혁신을 거듭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ETF의 최초 등장 이후 3년만인 1996년에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의 주식시장을 기초로 하는 해외 ETF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단일국가에서 지역, 글로벌 등 지역적 투자 범위가 다양화된 종목들이 속속 출시됐다. 또한 ETF는 주식이라는 경계도 무너뜨리며 다른 자산으로도 확장했다. 2002년에는 채권 ETF가 처음 등장했고, 2004년에는 금을 시작으로 상품 ETF가, 2005년에는 통화 ETF도 거래되기 시작했다. ETF는 투자 가능한 거의 모든 자산군으로 확대되어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ETF는 창조적 혁신을 통해 보다 정교한 투자대상으로도 진화했다. 1998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 연동하는 ETF가 처음 나타난 이후 금융·IT·헬스케어 등 보다 세분화된 섹터 ETF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정한 투자관

미국 ETF의 주요 발전 역사

연도	내용
1993년	S&P500 ETF 상장
1995년	미국 ETF 자산규모 10억 달러 달성
1996년	해외(International) ETF(미국, 일본 등 단일국가 ETF) 설정
1998년	최초 섹터(Sector) ETF 도입
1999년	최초 나스닥(Nasdaq) ETF 상장
2002년	최초 채권(Bond) ETF 발매
2004년	금ETF를 시작으로 상품(Commodity)ETF 등장
2006년	인버스(Inverse) 또는 레버리지(leveraged) ETF 설정
2014년	미국 ETF 자산규모 2조달러 돌파

출처 : PWC, ETFdb.com, ETFGI

점 또는 트렌드를 담은 테마 ETF도 꾸준히 개발됐다. 고배당주·가치주·경기방어주 ETF가 등장했으며, 글로벌 자원 개발·인프라 투자·사회책임투자 ETF 등도 선보이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2년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로 출발하여, 오늘날 섹터 및 테마 ETF가 74개 종목으로 전체 185개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다. ETF로 단순히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분화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섹터에 배분하거나 특정 테마에 발 빠르게 투자하는 전술적 자산배분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ETF를 활용한 자산관리가 하나의 조류가 되면서 지금까지 ETF의 가파른 성장은 주로 투자자문 등 개인자산관리 산업이 주도해왔다. 다음 호에서는 ETF가 왜 매력적인 투자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OBLIGE CLUB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한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일중매매는 거래전락 등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단기간 내에 상당액을 손실할 수 있고, 잦은 매매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의 파다 발생으로 수익 실현 기회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수수료 : 스마트폰, 태블릿 0.015% / HTS 0.029% / 오프라인 0.448%(2억 이하)입니다(거래 매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이슈진단

안갯속 글로벌 투자환경, 내 자산에 전조등을 켜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2016년에는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한해, '저변동성' + '수익성' + '절세효과'라는 세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현명한 투자를 계획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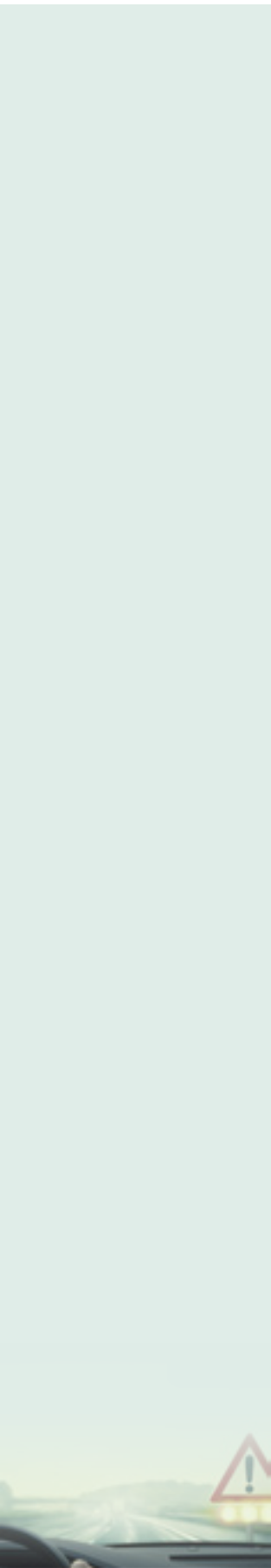
글 강민구
미래에셋증권 마케팅팀
선임연구원
✉ mingu.kang@miraeasset.com

작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多事多難'

2015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정말 다사다난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중국본토 주식시장은 롤리코스터 장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채권시장 또한 미국 금리 인상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투자자산인 '주식'과 '채권'은 투자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익을 안겨주지 못했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하면서 은행의 예금자산 또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만 했다.

고개 숙인 내 자산, 해결책은?

'작년 농사가 실망스러웠는데, 금년에는 어떨까?' 라고 농사에 빗대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을 묻는다면 '올해 작황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것이 필자의 대답이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성장률 둔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양적 완화만으로 시장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올해에도 시장이 좋아져라 기우제만 지내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리스크를 줄이고 '은행금리+α'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자. 시중금리가 3~4%를 오갈 때는 투자 매력이 높지 않았으나, 지금의 저금리 시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투자자들에게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주목할 만한 투자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한 투자 상품 고르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민하는 자산가들에게는 ‘절세’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과거에는 기대수익이 높은 주식자산에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산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했다면, 지금은 스마트한 전략을 활용하여 저변동성과 수익성 및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① No.1 → ‘롱숏펀드’

롱숏펀드는 매수를 의미하는 롱(Long) 전략과 매도를 의미하는 숏(Short) 전략을 함께 구사하는 상품으로 한국형 헷지펀드라는 별명이 있다.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매수포지션만 활용하는 펀드에 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롱숏펀드의 상품으로는 ‘미래에셋스마트롱숏’과 ‘유리트리플알파’ 펀드를 꼽을 수 있다. ‘미래에셋스마트롱숏’은 주로 펀더멘탈 롱숏전략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같은 업종 내에 A, B 두 주식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A주식을 매수하고 B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주식 매도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헷지하면서 두 거래 간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유리트리플알파’는 유사한 전략으로 우선주와 보통주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해 매수, 매도 포지션을 활용한다. 구체적인 운용방법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주식대비 낮은 변동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롱숏전략은 주식과 선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② No.2 → ‘커버드콜 전략’

조금 다른 전략을 활용한 상품도 있다.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펀드는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한다.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은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의 손실은 커지지만, 콜옵션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보유 주식이 상승하므로 손실을 줄일수 있게 된다.

해당 펀드는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헷지하면서 콜옵션 매도 시 수령하는 ‘프리미엄수익’과 배당주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채권의 이자’를 바탕으로 인컴수익을 쌓아간다. 이 펀드 역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과 주식의 시세차익에서 나오는 수익은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가능하다.

투자상품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굴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한해, 스마트한 투자를 시작해보자.

OBLIGE CLUB

참고 (15.12.02 / A 클래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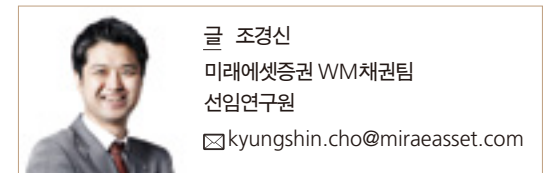
펀드명	주요 운용전략	과세	보수 및 수수료
미래에셋 스마트롱숏50 증권자투자신탁1호 (주식혼합)	시장상황 등에 따라 주식시장 노출도 조절과 개별주식 롱숏전략 등을 구사하여 낮은 변동성의 수익을 추구	주식·선물 매매차익 비과세 / 채권이자, 주식배당 과세	선취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 총보수 연 1.15%(운용 연 0.55%, 판매 연 0.55%, 신탁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환매수수료는 없음.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15시 경과 후 제3영업일)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15시 경과후 제4영업일)
미래에셋 스마트롱숏30 증권자투자신탁1호 (채권혼합)			선취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4%. 총보수 연 0.8%(운용 연 0.45%, 판매 연 0.3%, 신탁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환매수수료는 없음.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17시 경과후 제5영업일)
유리트리플 알파증권 투자신탁 (주식혼합)	우선주/보통주 Long-Short 전략 및 공모주 투자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 채권이자, 주식배당 과세	선취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 총보수 연 1.14%(운용 연 0.60%, 판매 연 0.50%, 신탁 연 0.025%, 사무관리 연 0.015%). 환매수수료는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제3영업일 기준 가격으로(15시 경과 후 제4영업일)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15시 경과 후 제4영업일)
유리트리플 알파30 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			선취수수료 없음. 총보수 연 0.98%(운용 연 0.35%, 판매 연 0.60%, 신탁 연 0.02%, 사무관리 연 0.01%). 환매수수료는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17시 경과후 제5영업일)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	우선주 및 배당주의 매매차익 & 배당수익, 콜옵션 매도프리미엄 수취를 통한 인컴 수익 추구	주식매매차익 & 옵션프리미엄 비과세 / 채권이자, 주식배당 과세	선취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 총보수 연 0.96%(운용 연 0.45%, 판매 연 0.46%, 신탁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환매수수료는 없음.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15시 경과 후 제3영업일)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15시 경과후 제4영업일)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금리 시대 채권 투자법

2016년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고령화’가 꼽히고 있다.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제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민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과거에 경험한 적 없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금리·저성장·고령화 시대 시장 상황에 맞춰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 적절하게 나눠 분산 투자해야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글 조경신
미래에셋증권 WM채권팀
선임연구원
✉ kyungshin.cho@miraeeass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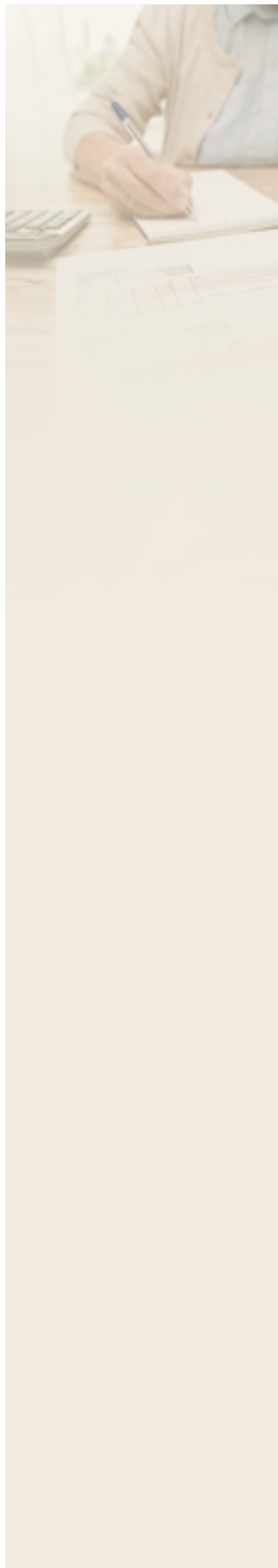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빠른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는 자산시장의 큰 변화는 바로 저금리의 정착 또는 심화를 꼽을 수 있다.

연기금 주요 투자대상은 ‘채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저금리로 연결되는 논리는 간단하다. 돈을 벌고 소비를 하는 인구의 감소는 개인의 주택수요와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주택수요와 투자수요의 감소는 자본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 자본수요의 감소는 시중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돈을 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이자를 받고 고서라도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만약 자본의 수요와 함께 공급 역시 감소한다면 고령화가 꼭 저금리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는 현재 자본공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연금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총자산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필두로 기타 연기금의 자산과 개인연금 잔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액 약 53%(265.8조/500조, 2015년 9월 기준)가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자산 역시 대부분이 예금, 확정금리형 주가연계증권(ELS),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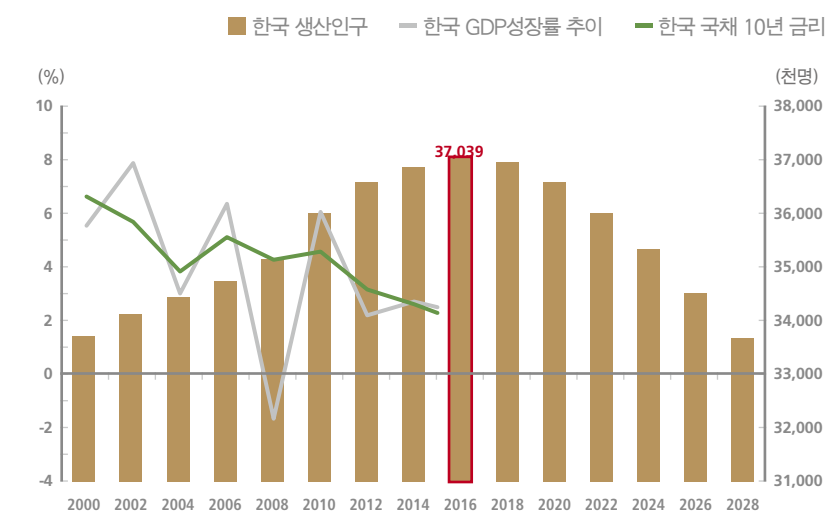
면서 직간접적으로 채권에 투자되어 채권시장으로의 자본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의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저금리의 정착 또는 심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모하게 닮은 한국과 일본 인구구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장기불황 '잃어버린 20년'이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되었다는 분석은 아주 많이 있다. 인구구조 상에서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서서 생산가능인구가 고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저금리를 그대로 경험한 바 있다. 실제로 일본의 생산가능인구의 고점은 1995년에 형성되었는데 생산인구 고점이 형성되기 약 수년 전부터 경제성장률과 장기금리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최근 3~4년 동안 경제성장률과 장기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과 모하게 닮은 측면이 있다.

일본의 과거와 한국의 현재가 흡사해 보이는 이유는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경제 상황과 금리 수준을 인구구조만으로 재단할 수 없고 한국의 미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는 자산배분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국 생산가능인구와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주 : 2015년 12월 4일 기준

출처 : 블룸버그(Bloomberg), 미래에셋증권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대상 지표(주가 등)의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량 장기채권으로의 분산투자 필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고, 금융자산은 예금위주의 단기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 보수적인 한국의 자산관리 성향은 저성장·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되고 심화될수록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자가 거주 외 부동산 자산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금융자산 중 3년 이하 단위의 단기상품 투자금을 5~20년 만기의 국채 또는 우량채권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장기채권에 투자할 경우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만기까지 정해진 금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시중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만기 이전에 매도할 경우 우 비과세 자본차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장기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외 자산으로의 분산투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미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 생산가능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거나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 중 건조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국가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분산투자한다면 향후 다가올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산시장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OBLIGE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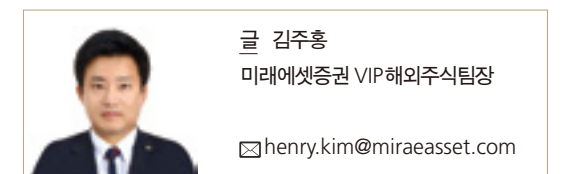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채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발행 외의 채권에 대해 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중도매매시 시장금리 등에 따라 원금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톨아보기

'선강통'이 가져 올 투자기회

중국은 2014년 홍콩과 상하이의 증시 간 교차 거래하는 '후강통'에 이어 올해 홍콩과 선전의 증시가 교차 거래하는 '선강통'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선강통' 시행이 중국 증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지 짚어본다.



글 김주홍
미래에셋증권 VIP해외주식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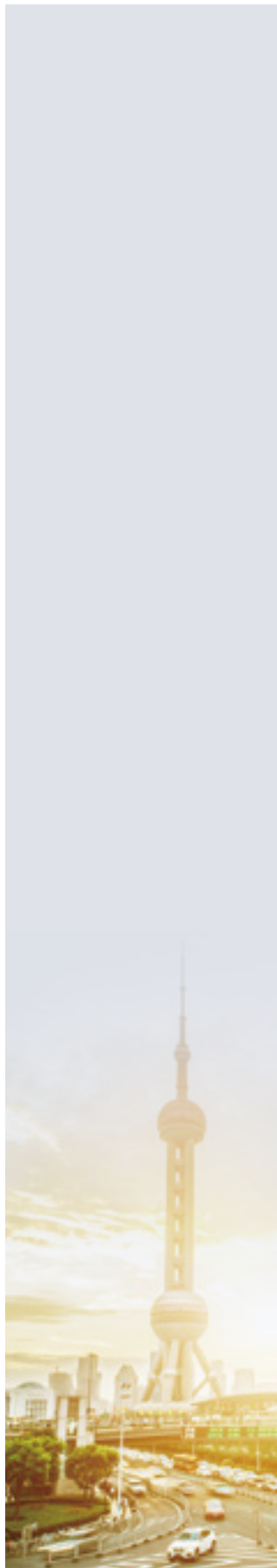
✉henry.kim@miraefund.com

2015년 중국 주식시장에는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가결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후강통' 시행은 지난해 중국 증시의 메인 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 중국 관련 주요 이슈로는 '선강통(深港通)'의 시행과 중국 A주(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 전용 주식)의 MSCI 이머징지수 편입 등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2016년 중국의 선강통 시행으로 중국증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선강통 시행 후 예상되는 변화

기존에는 국내 투자자가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나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취득한 운용사의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1월 후강통 시행으로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개별 종목 매매가 가능해졌다. 올해 선강통이 시행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매매 가능한 종목으로 선전300지수나 선전1000지수 구성종목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선강통 시행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을 통한 기업공개(IPO) 활성화, 신규 투자자 유입으로 인한 중국 증시의 리레이팅(Re-rating), 보다 개선된 투자문화 정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14년 후강통이 시행되면서 투자자금 유입이 쿼터제의 제약으로 기대보다 미흡했다는 평이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제도라는 판단이다.

선강통의 대상이 되는 선전증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홍콩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기술주와 민간 중소형주 중심의 상장 종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2009년 창업판(ChiNext)이 도입되면서 상장종목 수와 시가총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12월 현재 심천 A주 상장기업은 총 1,729개(메인보드 478개, 중소기업판(SME) 767개, 창업판 484개)이며 시가총액은 약 22조 위안(메인보드 7.3조 위안, 중소기업판 9.4조 위안, 창업판 5.2조 위안)으로 중국 본토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

최근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 목표의 바오치(保七)에서 6%의 바오류(保六) 시대로 하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상하이와 선전 메인보드 구성 종목의 순이익 증가율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선전 중소기업판과 창업판 구성 종목의 순이익은 상승세를 보이는 차별화 양상을 띠고 있다.

높은 이익 증가세와 자기자본이익률(ROE) 지속 상승, 개인투자자 비중이 크다는 점, 신경제업종의 집중 상장 등을 감안할 때 선전증시의 밸류에이션(가치대비 평가)이 P/E 60~95배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2015년 11월,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상하이증시의 경우 금융, 산업재, 에너지 섹터가 주를 이루는 반면 선전 창업판의 경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거 상장되어 있고 구성 업종 또한 IT, 경기소비재, 헬스케어 등이 포진되어 있다. 선전증시의 구성 종목은 상하이증시 구성종목 대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고(선전 14조 위안, 상하이 29조 위안), 개인 투자자의 회전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 선전증시 메인보드의 실적대비 주가수준(P/E)이 30배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지만 창업판과 중소기업판은 각각 95배, 150배 수준이므로 면밀한

관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높은 증시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2015년 11월,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후강통의 지난 1년간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선강통은 투기심리 과열, 신용거래 확대,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등 요인으로 선전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유연한 대응, 신규 개설계좌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으로 주식시장 저변 확대 및 신용융자 물량 안정화를 통해 선강통은 궁극적으로 중국 증시를 발전시키고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OBLIGE CLUB

■당시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중국-상해A : 온라인 0.3%, 오프라인 0.5% 등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중매매는 거래전략 등 증권시장 전변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단기간 내에 상당액을 손실할 수 있고, 잦은 매매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의 과다발생으로 수익 실현 기회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드 바이저리

- 70 절세 가이드
- 72 부동산 솔루션
- 74 법률 클리닉

글로벌 자산배분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G2(미국·차이나) 랩어카운트
본토 차이나 랩어카운트
ALL 차이나 랩어카운트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 랩어카운트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랩어카운트

글로벌 투자, 랩어카운트로 만나십시오

미래에셋의 검증된 글로벌 자산배분 능력과
해외 네트워크의 경험을 모두 담아 차별화된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도,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랩어카운트로 만나십시오.

주요 글로벌 랩어카운트 시리즈

양도소득세(22%)로
분류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랩:** 전세계적 브랜드 파워를 가진 세계대표기업에 투자
-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 랩:** 중산층 증가와 함께 성장하는 아시아 소비재기업에 투자
- **ALL 차이나 랩:** 중국의 성장주 및 新경제주에 탄력적으로 투자
- **본토 차이나 랩:** 성장성 높은 유망업종과 테마를 활용한 중국 본토 집중투자
- **G2(미국·차이나)랩:** 양대 글로벌 리더인 미국과 중국의 대표기업에 투자
- **글로벌 자산배분 퇴직연금 랩:** 상위 20%이내의 국내·외 펀드에 자산배분

고객상담전화 : 1577-9300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의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랩어카운트 계약 전에 투자대상, 운용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등에 관한 약관, 계약권유문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관리 되는 투자일임계약입니다. ■랩어카운트는 위탁매매수수료는 없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 등은 고객님이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참조(www.smartmiraeasset.com)

글로벌 자산관리 전문가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VIP 고객을 위한
글로벌 자산관리 매거진

절세 가이드

절세되는 ISA, 어떻게 활용하나?

2015년 12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관련 법이 통과됐다. 이제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주기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아 종합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ISA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ISA를 활용해야 조 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총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ISA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채 권형펀드, 주기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이 꼽힌다. ISA는 여러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 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한 이익금 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 된다.

원리금 보장상품이 아닌 투자성 상품은 이익이 날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수도 있다. 개별상품에 투자하면 이익이 난 상품의 금융소득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만 다른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이익이 난 상품의 금융소득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므로 각각 의 금융상품을 별도로 가입한 경우에 비하여 ISA를 활용하는 경우 과세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가령 A상품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났고 B상품에 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났다면, 개별상품에 가입한 경우 154만 원(1,000만 원의 15.4%)의 세금이 발 생하지만 ISA로 A와 B상품에 가입한 경우 49만 5 천 원(순이익 700만 원 중 비과세 200만 원 제외한 500만 원의 9.9%)의 세금만 발생한다.

고소득 연봉자나 사업자도 가입 가능

ISA는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을 가입조건으로 하고 있어 소득수준의 높고 낮음 과 상관없이 전년도 퇴직한 근로자 및 폐업한 사업 자 또는 고액 연봉자나 고소득사업자도 가입이 가능 하다. 2016년 이후 신규취업자라면 그해의 원천징

수영수증을 지참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직전 연도에 금융소득 2,000만 원이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대 상에서 제외되니 혹시 이에 해당한다면 보유한 금융상품을 증여·양도하여 다음해 가입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

납부한도는 연간 2,000만 원으로 의무가입기간인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 지 납입이 가능하다. 단, ISA의 연간 한도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소장펀드)의 납입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재형저축 또 는 소장펀드에 가입 중인 경우라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해야

ISA를 개설하면 의무가입기간은 5년인데 기간 경과 이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혜택을 보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 다. 그리고 기존에 재형저축, 소장펀드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도가 통합관리 되므로 자금을 어느 곳에 넣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해 보아야 한 다. ISA나 재형저축 세제혜택은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장 펀드는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납입액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소장펀드 혜택을 먼저 챙기는 것 이 좋다. 600만 원의 투자가능자금이 있어서 소장펀드에 납입한다면 39만 6천 원[600만원×40%×16.5%]의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동일 한 투자자금을 재형저축(연간 수익률 4% 가정)에 납입한다면 3만 6,960 원[600만 원×4%×15.4%]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고, ISA에 납입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단, 수익률이 더 높다면 재형저축의 금융소득 전액이 비과세인 반면 ISA의 금융소득은 최대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형저축에 먼저 납입하고 ISA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 지만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항상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앞 서 가정한 사례의 고민을 할 것 없이 ISA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들은 애 초부터 소장펀드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총급여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더불어 재형저축 가입대상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맞 춤형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 본문에 표기된 세율은 지방소득세(납부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ISA 비과세 한도, 의무납입기간 등은 연령, 급여수준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 박철홍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팀
세무사
✉ chulheung.park@miraeeasset.com



부동산 솔루션

2015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 관심사 TOP 5

지난 해에도 대부분의 고액 자산가들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동시에 비수익형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15년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 관련 주요 관심사들이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점검해본다.



글 신기동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비즈니스
수석부동산컨설턴트
✉ kdshin@miraeeasset.com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계속된다

고액 자산가들의 계속되는 투자 관심사는 ‘수익형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컨설팅의 30% 비중을 보일 정도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상가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2015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특징으로 기존 상권의 높은 매매가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투자 지역의 범위를 특정 상권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는 것이다. 투자 대상으로는 기존에 관심을 뒀던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창고, 공장, 게스트하우스, 분양 호텔, 분양 오피스 등으로 투자 상품 범위도 넓히고 있다.

이에 반해 시장의 성숙도 및 수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단발성 관심으로 그치는 투자대상 또한 적지 않아서 투자 시 주의를 요하고 있으나,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관심 부활한 아파트 시장

인구절벽, 금리인상, 과잉공급, 고액 분양가 등 각종 우려를 비롯듯 과열을 우려할 만큼의 활황기를 맞이한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에 맞게 고액 자산가들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매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대한 관심 비중이 높아진 반면 지방 대도시의 경우 투자 회수 시기에 대한 고민과 재투자 지역 결정에 대한 고민 비중이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꿈틀대는 토지 투자

그동안 매각 고민이 많았던 토지의 경우, 2015년에는 반대로 투자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다. 특징적인 점은 개발 호재가 많았던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 대해 과거처럼 ‘묻지마 투자’도 여전히 있었지만 과거와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 가능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토지를 개발 및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의 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상가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분석/예측 가능한 토지에 대한 투자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강조되는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

수익형 부동산 또는 토지 관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보유 부동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물리적 관리뿐 아니라 임대료 관리, 더 나아가 임차인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임차인 구성 등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단순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던 토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증여 또는 상속과 맞물려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개발 또는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많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관심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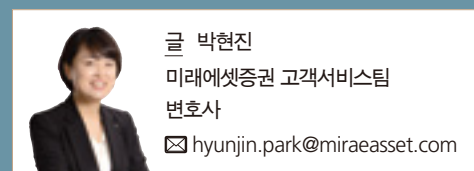
반짝 분양 상품의 몰락(?)

개인투자자들에게 생소하지만, 2014년엔 절정에 달했던 분양형호텔과 지식산업센터의 대한 관심은 급감했다. 물론 공급의 변화에 기인 한 바도 있겠지만 논란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분양 주체의 수익률 보장, 운영 신뢰도, 과잉공급, 과장광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에게 익숙하며 경쟁 상품군인 오피스텔은 공급과잉, 임대료 하락, 고액 분양가 등의 논란에도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3억 원 미만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대안 상품이 없는 이상 여러 논란에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도소송의 어려움

한달, 두달, 세달... 계속적으로 월세가 연체되는 상황에서도 곧바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임대인은 많지 않다. 하지만 보증금만 믿고 느긋하게 생각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글 박현진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팀 변호사
✉ hyunjin.park@miraeasset.com

임차인이 월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월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있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인은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임차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하고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인 점유 침해하다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상가나 주택을 비워주지 않은 채 계속 점유 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임차인을 밖으로 끌어내거나 가구나 집기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내 집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끌어내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자칫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일단 집이나 상가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다. 합부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상가의 경우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다. 임차인을 끌어내기 위해 물리적 힘을 가한다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합부로 옮기는 것 역시 (훼손 없이 위치만 바꾸는 것이라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한다.

결국 임차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임대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명도 받기까지의 과정 쉽지 않아

명도 소송은 언뜻 간단하게 생각될 수 있다. 임차인이 점유할 권리가 없는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 임대인이 승소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임차인이 점유한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길 것이 명백한 소송임에도 부동산을 명도받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명도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생각해야 하고 임차인이 갖가지 방법을 써서 절차를 지연시킨다면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된다. 긴 싸움을 통해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 임차인이 판결문대로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한다면 다행이지만 애초에 점유할 권한 없이 점유를 계속했던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국 임대인은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이의신청이나 물리적인 방법 등을 통해 집행을 지연시키는 임차인도 적지 않다.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임대인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시점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연체된 월세와 인도 받는 날까지의 부당이득액 및 소송비용 등을 합한 임대인의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결국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임차인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이 과정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건물이나 주택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임대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버린다. 결국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법적 조치에 돌입해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한다. 보증금만 믿고 시간을 보낸다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미래에셋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 'V-Point'

미래에셋그룹은 특별한 VIP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 'V-Poi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V-Point'는 미래에셋의 VIP 고객이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인프라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서비스로, VIP 고객에게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해당 포인트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V-Point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금액의 10%는 V-Point로 적립된다.

'V-Point' 서비스는 현재 국내 '블루마운틴 컨트리 클럽'과 '포시즌스 호텔 서울'을 비롯하여 '페어몬트 오키드 하와이'와 '포시즌스 호텔 시드니', '페어몬트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이용가능한 국내 외 제휴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제휴처 중 '블루마운틴 컨트리 클럽'은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프리미엄 급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최상의 그린 및 코스를 자랑하고 있다. 인간이 가장 쾌적함을 느낀다는 해발 765미터 고지에 위치해 힐링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 10월에 그랜드 오픈한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경복궁과 청와대 조망이 가능한 광화문에 위치해 한국적인 감각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결합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포시즌스'에 걸맞는 품격있는 호텔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플라스틱 카드는 물론 스마트폰 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모바일 앱 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미래에셋그룹은 앞으로도 최상위 VIP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V-Point'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제10기 살롱 아카데미

아름다운 궁궐 사진과 조선왕조 이야기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1월 최상위 VIP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급 문화예술 클래스 '살롱 아카데미'를 개강, 4회에 걸쳐 운영했다.

이번으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살롱 아카데미는 '아름다운 궁궐 사진을 통한 조선왕조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살롱 아카데미 강사는 지난 9기 때 '좋은 사진, 생각하는 사진'에서 열띤 강의를 펼친 이태훈 작가가 다시 한번 강사로 나섰다.

조선의 대표적인 4대 궁궐인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의 운치 있는 풍경을 이태훈 작가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감상하며 조선 왕들이 직접 지은 어제시(御製詩)를 통해 조선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클래스에서는 창덕궁 전각을 비롯해 비원으로 알려진 후원을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는 현장 답사 프로그램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살롱 아카데미는 최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조선왕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에서 고객 참석률과 만족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VIP 고객의 니즈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문화기행(文化紀行)

사진으로 읽는 인문학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1월부터 12월 두 달간에 걸쳐 전국 주요 10개 도시에 서 문화 강연프로그램인 '문화기행(文化紀行)'을 개최했다.

'문화기행'은 VIP고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가을에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2회에 걸쳐 진행한 후 전국의 더 많은 고객에게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대구, 거제, 송도, 창원, 울산, 포항, 대전, 순천, 광주 10개 도시를 찾았다.

〈사진으로 읽는 인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왕의 시선으로 바라본 조선궁궐'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아름다운 궁궐사진과 임금의 어제시, 그리고 이에 얽힌 역사이야기까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다음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과 주제에 대한 다양한 요청 등 높은 만족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미래에셋증권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WM세미나 우수직원 8인

글 미래셋증권 마케팅팀

미래셋증권은 VIP 고객을 위한 글로벌 자산관리 브랜드 '미래셋 오블리제 클럽'을 전면에 내세우고 웰스매니저(WM)를 통해 자산관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WM세미나는 미래셋증권만이 가지고 있는 고객과의 강력한 소통 채널 중 하나이다.

내가 믿고 있는 가치가 현실화 되기까지
쫓기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압구정지점 남웅건 웰스매니저

☎ 02-3446-7389
✉ woonggeon.nam@miraesasset.com



자산관리는 금융뿐 아니라 라이프사이클까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컨설팅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고객의 세밀한 부분까지 케어하기 위해 편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과의 동행은 궁극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고객과 관리자의 믿음이 기본이 될 것이다.

내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자산관리에 임한다

대구지점 이정아 웰스매니저

☎ 053-421-7040
✉ jeongah.lee@miraesasset.com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고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상품인지 재차 생각한 후 적합한 상품이라 판단 될 경우 포트폴리오에 추가한다. 고객과 관리자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이 오랫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과의 신뢰관계는
수익률만큼 중요하다

WM강남파이낸스센터 배한걸 웰스매니저

☎ 02-2112-1934
✉ hangyul.bae@miraesasset.com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고객 자산관리를 하다 보니 고객과의 신뢰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고객으로부터 지인 소개를 많이 받았다. 자산관리에 있어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고객과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수익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한번 형성된 관계는 바뀌기 어려운 것이다.

반짝 스타보다 안정된 중견 배우처럼
고객에게 없으면 안 되는 관리자가 되자

순천지점 추태선 웰스매니저

☎ 061-721-4551
✉ taesun.choo@miraesasset.com



열 번 잘해도 한번의 실수로 고객과의 신뢰가 훼손되기에 고객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고객에게 집중해야 한다. 단순히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만남을 통해 좋은 자산관리자로서 소중한 인연을 맺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모든 것에 방법이 보인다

서초남지점 오정택 웰스매니저

☎ 02-522-9307
✉ jungtaek.oh@miraesasset.com



시장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는 옷(금융상품)을 입혀야 하고(change), 그 옷은 다양하게 구비되어 선택되어야 하며(choose), 상·하의가 어울리는 옷일수록 호감도는 높아지게 마련이다(connect). 이러한 과정 속에서 꾸준한 스테디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객 우선, 수익률 우선

울산지점 홍진교 웰스매니저

☎ 052-268-0142
✉ jinkyoo.hong@miraesasset.com



'수익이 없는 곳에 고객도 없다'는 신념으로 고객의 장기적·안정적인 수익 추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급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환경에서 장고의 시간을 보낸 자만이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장기투자자 소수의 게임'에 대한 믿음으로 고객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잃지 않는 투자, 키우는 자산관리

방지역지점 이봉숙 웰스매니저

☎ 02-412-3038
✉ bongbuk.lee@miraesasset.com



고객과 관리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게 되는 만큼 그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점점을 꾸준히 찾아내고 자산을 증식시켜줄 때 유지될 수 있다. 단순히 투자상품의 수익률로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고만을 함께 풀어나갈 때 진정한 자산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조건 신뢰!

구리지점 황순연 웰스매니저

☎ 031-567-9024
✉ soonyeon.hwang@miraesasset.com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진다. 자산을 공개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고객으로부터 믿음을 얻어야 고객도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함께 고민하려 할 것이다. 불확실함을 이기는 확신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자산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한 미래셋 임직원과 가족들의 인증샷

한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털모자

미래셋 임직원,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참여하기

미래셋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지난 11월부터 한달간 진행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마련한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으로 임직원 2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은 NGO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매년 진행하는 대표 사업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28일 미만 신생아들의 체온보호를 위해 기부자가 직접 뜨 모자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나눔에 대한 마음은 있어도 선뜻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직원들에게 시간에 대한 부담 없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나눔문화에 동참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았다.

“이 모자가 아기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니 뿌듯합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과 함께하니 자연스럽게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대신 나눔을 위해 뜨개질을 하는 나에게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뜨개질이 생소하여 처음엔 고생 했지만,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모자 뜨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소감

제 34호

오블리제 클럽 자유작품 공모전 당선작 갤러리

공모전 '우수작' 당선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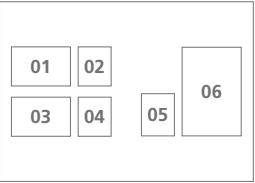
대구지점 · 김기탁 고객 | 전주지점 · 김정효 고객
진주시점 · 김태한 고객 | 청주시점 · 류호삼 고객
대전지점 · 박충만 고객 | 부산지점 · 이기영 고객
신촌지점 · 이병동 고객 | 천안지점 · 임종본 고객
강남구청지점 · 하중선 고객 | 명동지점 · 한상일 고객

- 우수작 당선 고객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작 당선 고객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 본 갤러리의 작품 중 일부는 수정·보완 되었음을 알립니다.

미래셋증권 VIP 고객을 위한
글로벌 자산관리 매거진

밤새 눈이 펄펄 내리더니
집앞에 새하얀 세상이 펼쳐졌어요.
온 가족이 함께 처음으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광주지점 김선장 고객



- 01 웨미리지점 권휘동 고객
- 02 광주지점 김선장 고객
- 03 광주지점 김순초 고객
- 04 평촌지점 김정원 고객
- 05 남천동지점 김태성 고객
- 06 진주지점 김태한 고객



지금부터 10년 전 은퇴후에 같이 여행다니자던
아빠를 대신해 두 아들들의 권유로 떠났던 앙코르왓트 여행사진
일행들로부터 ‘직장종고 잘 생긴 두 아들’이라는 찬사를 받고 얼마나 가슴벅찼던가
(딸 셋 후에 바라던 아들들 효도도 못받고 떠난 남편생각에 울었던 추억을 되새기면서)
광주지점 김순초 고객



노르웨이 시에라볼텐이라는 곳입니다.
암벽사이에 낀 1,000m 낭떠러지 바위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증권시장이 만세를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진주지점 김태한 고객

노오란 마당
전주향교는 조선시대의 향교로
전주한옥마을 안에 위치해 있으며
사적 제379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아름드리 은행나무는 교생들의 번영을
염원한 낙엽수로 노오란 은행잎과
은행알이 가을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지점 김재준 고객



아기 같은 6살 둘째 해성이
아랫니 두개가 한꺼번에 빠졌어요.
이빨 빠진 개구장이 슈퍼맨,
건강하고 씹씹하게 자라줘~
강남센터지점 변은이 고객

01	03	04
02	05	06

01 광주지점 김재준 고객

02 청주지점 류호삼 고객

03 대전지점 박경수 고객

04 대전지점 박문규 고객

05 강남센터지점 변은이 고객

06 수리지점 안덕 고객

지난여름... 큰 수술 후 우리 부부는 통영으로 요양차 여행을 갔었지요.
오전에는 통영 케이블카 타고, 오후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절경의 소매물도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잘 왔다 싶더군요.
마침 작은 통통배가 하나 지나가는 순간, 신속하게 핸드폰을 들이냈지만 순간 포착이 좀 늦었지요.
그래도 소매물도의 멋진 모습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점 박충만 고객



열정의 나라, 쿠바! 쿠바 혁명 이후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수십년간의
경제 봉쇄로 쿠바국민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들 나름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쿠바는 음악과 춤을 통해
그들의 열정을 뽐내내고 있는 거리의 악사를 만나 보았습니다.

강남센터지점 오윤석 고객



여름휴가에 파타야에 가서 산책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플루메리아
한송이를 주워서 여행을 준비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쁘게 컬러를
입힌 엄마와 딸의 발과 함께 찍었습니다.
언제 다시 찾아보아도 그날의 파스했던 행복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기분좋은 사진이라 많은 분들과 함께 보고 싶어 응모합니다.

압구정지점 이정민 고객

01		03	
02	04	05	06

- 01 대전지점 박충만 고객
- 02 강남센터지점 오윤석 고객
- 03 부산지점 이기영 고객
- 04 분당지점 이영남 고객
- 05 압구정지점 이정민 고객
- 06 북부산지점 정인곤 고객

모 회사 마닐라지점에 파견되어 2010년부터 14년까지 약 4여년간 주재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라고들 하지만 아름다운 마닐라bay의 사진을 다시 보노라면,
마음의 평온함과 그때의 그리움으로 눈시울이 불거지네요. 아~ 옛날이여~

신촌지점 이병동 고객



이 좋은 가을에 변산마실길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포근한 바닷가길, 그리고 억만년동안 이어온 격포항
채석강 모습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전지점 정종진 고객



01	04
02	03
05	06

- 01 신촌지점 이병동 고객
- 02 대전지점 정종진 고객
- 03 사하지점 조소연 고객
- 04 강남구청지점 하종선 고객
- 05 분당지점 한경미 고객
- 06 도곡지점 교석주 고객



마차푸차레 노을

천안지점 **임종본** 고객

맑디맑은 청산을 풀어헤친
온 지구의 그리움
모두 품은 거기
히말의 남봉 어디쯤
우주의 신이 내린 자락에
나 그 즈음
하얗게 젖은 채
서 있었구나.
작은 날개를 접은 나비처럼
신비의 세상 어귀에
소박한 어부가 되던 날

Machapuchare(6,993m) : 네팔 북부에 위치한 안나푸르나 히말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온 산맥의 끝에 위치한 봉우리로 네팔 중앙의 휴양 도시인 포카라로 부터는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있다. <네팔어로 '물고기 꼬리'>발 자욱이 없는 신성한 산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의 다양한 지면을 보면서 함께라는 이념으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셋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안지점 **임종본** 고객

산책길

명동지점 **한상일** 고객

오늘도 걷는다
그리운 엄마의 발자국을 밟으며
추억을 되뇌어 본다

환한 미소의 엄마와 손잡고 거닐던 그길
혹시나 등뒤에서 다시금 나를 불러 주지는 않을까
행여나 벤치에 앉아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상냥하고 착한 우리 엄마와 거닐던 산책길
아픈몸을 이기기 위해 운동해야 했던 엄마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좋아라 하셨지

싱그러웠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는 이 산책길은
내년에도 여전히 볼수 있겠지

그러나, 더 이상 엄마와 동행할 수 없는 이 길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회상하며
오늘도 걷는다

생각이 변한 아름다운 꽃

디지털구로지점 **백정선** 고객

생각이 **흙**속에 심어지면
다음날 **꽃**으로 변신!
기쁜생각, 행복한 생각도
꽃으로 변신!
나쁜 생각, 노여운 생각들도
꽃으로 변신!
새벽에서 아침까지
짧은 시간동안 피지만
좋은냄새와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가는 생각 **꽃**
꽃이 질때 멜로디까지
전해주고 가는 생각 **꽃**
꼭 한 번 보고 싶다 생각 **꽃**

겨울 산행

부산지점 **허만규** 고객

아파트 주변의 도심에도 좋은 등산로가 있지만 굳이 한적한 산길을 찾는 이유는 위아래가 한 벌로 맞추어 있어 구색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 간편한 운동복으로 도심의 산을 오르내릴 때면 노숙자인 듯 바라보는 시선에 뒷머리가 아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게다가 등산을 하는 건지 명품 등산복 자랑을 하는 건지 형형색색의 옷을 차려입고, 혼자서 마음을 정화하기보다는 삼삼오오 다니면서 잡담하는 요란한 등산객들 때문에 새들마저 멀리 날아가고 온 새소리까지 들리지 않아 나만의 자유를 위해 한적한 산길을 찾는 것이다.

아산이라 시골집이 내려다보인다. 먼발치에는 잎이 조락하고 앙상하게 남은 감나무에 시절이 지난 탓인지 감이 하나도 매달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아스라한 내 어린 기억 속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 하나가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잔상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집에도 지금쯤이면 장대로도 닿지 않을 높은 꼭대기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붉은 홍시가 매달려 있을 것인데 남강댐 수몰로 감나무가 있던 우리 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문득 신발등 위로 낙엽이 밟에 떨어진다.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싶어 계승초레 눈을 떠서 고개를 들어 보면 어느새 잎을 상실한 앙상한 떡갈나무 가지가 노인의 알몸처럼 초라하게 느껴진다. “모든 것의 상실은 전체의 회복”이라는 커밍스의 명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조락의 아픔이 결코 자기 상실의 본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잎 하나 없이 서있는 나무가 그래도 고사라도 한 듯 안쓰럽다.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발걸음을 무작정 내딛어야 한다. 봄, 여름, 가을 내내 일벌레로 살아온 일과 의 전쟁에서 벗어나 입동의 스산한 겨울바람 소리에 활동으로 가득 찬 사념들도 미투리 벗어 던지듯 벗어버린다. 산길 뒤로는 조그만 암자가 눈에 들어온다. 법당에는 가족 이름과 생사를 적어 사월초파일에 걸어놓은 연등이 아직도 높다랗게 걸려있고 이따금 동면에 들어가지 못한 날 베짖이, 솔나방, 톱하늘소 같은 곤충들이 들락거리며 빈 법당을 지키고 있다. 그러고 보니 화재를 걱정하여 불을 켜지 않은 촛대의 양초는 먼지가 쌓여 있다. 스님은 벌써 결제(結制)에 들어갔는지 보이질 않는다. 법당이 있는 건물보다 더 외진 암자에서 동안거에 들어간 스님이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겪지 못하는 감성의 밑바닥을 헤

집으며 인간 본질을 사랑하고 아끼는 순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먹잇감이라도 찾을까 싶어 분주하게 암자 앞마당의 밭풀만한 빨간 보리수나무열매를 훑고 있는 참새소리를 스님은 듣고 있는 것일까?

고뇌와 고독은 내 전유물은 아니지만 이맘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무기이다. 스님은 이러한 고뇌와 고독을 어떻게 승화시켰을까? 스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피조물을 가지고 가을을 떠난 것일까? 작년 연말정산 때 몇 푼의 시주도 하지 않았으면서 알팍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려 절에 들른 적이 있는데, 그 때 스님은 당신의 외아들이 지금 히 사소한 말다툼 끝에 혼자 견뎌야하는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먼 길을 떠났다고 하였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모든 희망이 도망쳐버리는 감방, 술한 회한과 무거운 선고의 어두운 압력 속에서 신음하는 기결수의 어깨를 비춰주는 것도, 홀로 자신을 반성하는 유형수의 두꺼운 얼굴에 파도와 같이 잔잔한 파문이 일게 하는 것도 화산한 봄날, 뜨거운 여름, 풍성한 가을이 아니라 스산한 겨울에 낙엽 구르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귀를 틀어막아도 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는 화음이 고도의 지성과 날카로운 이성 의 정순함을 가진 예술가들만의 것은 아닐진대 응어리진 가슴을 앓고 괴로운 삶을 반추하는 스님의 아들은 어머니도, 밥해주는 보살도 없이 출가한 아버지 밑에서 혼자 살아갔던 산사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꿈 많은 교과서의 낭독을 급우들의 목소리에 맡기고 대신 그토록 지겨워했던 술한 낙엽 구르는 소리에 묻힌 아버지의 불경을 되뇌고 있을 것이다. 소박한 꿈을 실고 불어오는 바람에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는 나뭇가지의 초연한 자기 승화와도 같이 모든 이들이 회오가 계절에 파묻힐 것이다.

나는 인간 본질의 그림자를 밟기 위하여 철학자의 길을 떠나거나 만인을 구제하겠다는 신념하에 수양이나 득도를 위해 암자를 찾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언제쯤이면 도심에 오르는 등산객들을 나의 산행에 방해자로 여기지 않고 나와 함께 이 시대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여기게 될까? 가뜩이나 줄어드는 인구에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은 도시에서도 혼자 산에 오르케 되지나 않을까? 우리 세대를 이어줄 여인들이 화려한 등산복에 워자 지껄하듯 산행한다고 핀잔을 주었던 내가 갑자기 겸연쩍은 산행이었다.



계방산 -설국 그 품에 들다

미래에셋 오블리제 클럽 회원으로서 전국 각지의 회원님들의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을 보다가 평소 제가 산행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얼마전 다녀온 강원도 홍천의 눈덮힌 겨울산 계방산의 설국이 너무 좋아서 전국의 미래에셋 가족분들과 그 좋았던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글 대구지점 김기탁 고객

계방산(1,577m)은 겨울철이면 순백의 세계로 변한다. 남한 내륙에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에 이어 다섯 손가락에 드는 고봉답게 하늘을 뚫을 듯 우뚝 솟구친 모습은 가히 장관이다. 봉우리 전체가 마치 거대한 하나의 눈꽃 같다. 길게 뻗은 굽은 산등성이는 멀리서도 눈부실 만큼 반짝이는 설능을 이룬다. 환상적인 풍광을 자아내는 설경과 조망을 기대하며 저물어가는 을미년 십이월에 계방산 깊은 품으로 접어든다.

산행의 기점은 운두령 정상. 눈과 바람이 많은 곳이라 단단히 무장하고 아이젠을 신는다. 가파른 계단을 조금 오르자 이내 완만한 길이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정겹다. 산 아래 깊이 파인 계곡은 긴 겨울 잠에 빠져 있다. 나무와 바위들은 눈옷을 입고 계곡은 얼음에 덮인 채 숨을 죽인다.

능선에 접어들자 칼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친다. 매서운 바람은 능선을 따라 고풍적인 상고대를 연출한다. 나뭇가지마다 영롱하게 매달린 얼음 꽃들, 봄의 꽃인들 이보다 더 고울 수 있을까. 투명한 빙화와 코발트빛 하늘의 매혹적인 조합에 추위마저도 잊는다. 이처럼 운치가 빼어난 겨울 산을 소수만 즐긴다는 점이 아쉽다.

다시 산길을 오른다. 적잖이 급한 길은 깔딱고개라는 별칭에 걸맞게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오는 다리를 옮겨 놓으며 인내하는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겨울산은 하루에도 열두 번 그 모습을 달리 한다. 아침 해가 안개를 몰아내면 순백의 설원이 펼쳐진다.

눈 덮인 나뭇가지들이 만든 눈 터널은 겨울 산행의 백미다. 초여름 한철 연분홍빛으로 화사하던 철쭉군락은 눈꽃으로 반짝이고, 푸른 가지 늘어뜨린 솔들은 하얀 함박꽃을 피웠다. 방한복을 파고들던 칼바람은 이제 야 좀 잠잠해졌다. 지금 시각 오후 두시 서둘러 도시락을 꺼낸다. 추위에 입이 얼어붙어 밥 넘기기도 쉽잖다. 계방산 설국 품에 안겨서 따뜻한 커피 한잔을 입에 머금고 그 맛을 음미 하면서 보는 생생한 백설의 동양화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한다. 전망대의 조망은 환상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북쪽의 설악산과 동쪽의 오대산이 하얀 솜이불을 덮어쓰고 장쾌한 파노라마를 연출한다. 멀리 방태산과 전봉산의 주봉이 꿈틀거리며 눈앞으로 다가온다. 산허리 부근부터 휘감아 오른 상고대는 눈부시듯 아름답다. 어느 진경산수화가 이보다 좋으랴. 두고 두고 잊지 못할 영상으로 남는다. 시간을 아껴 다시 산길을 재촉한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고되다. 매서운 한파에 손끝이 얼어 오고, 얼굴은 깨져나갈 듯하다. 콧구멍 속의 코털도 짹짹 달라 붙는다. 찬 날씨에도 오손 도손 이야깃꽃을 피우는 회원들의 모습이 소박하고 정감이 넘친다. 한겨울 눈 산행이 왜 힘들지 않을까마는 그래도 얼굴빛은 밝다. 순간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을 나게 하는 오르막 빙판길은 속도가 붙지 않는다. 미끄러지고 다시 오르기를 이십 분 남짓, 마침내 정상에 닿는다. 추위에 얼어 붙은 표지석이 일행을 반긴다. 정상에 우뚝 서니 주위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 찬다.

설악산 대청봉 능선을 따라 중청과 귀뚜기청까지 흰 눈을 엮은 채 솟구쳐 오른다. 또한 강원도의 크고 작은 산들이 너울을 이루며 조망을 보낸다. 눈 덮인 설원은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구름인지 분간이 어렵다. 그저 한쪽의 수목화만 펼쳐질 뿐이다.

을미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종착역인 십이월, 계방산 정상에서 태양을 바라본다. 장엄하고도 파사로운 햇살이 천지간에 가득하다. 그 햇살을 한 자락만 가슴에 쓸어 담아도 새해의 꿈과 소망을 모두 이룰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샘솟을 것만 같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바람에 입을 막으며 하산을 서두른다. 내리막길은 누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미끄러져 내린다. 나뭇가지엔 전국 산악단체가 달아놓은 리본들이 펄럭인다. 산객이 헤친 오솔길을 이십 분쯤 내려가자 또 다른 풍광이 일행을 기다린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목 군락, 해발 천사백고지에 뿌리를 내린 주목에도 눈꽃들이 커켜이 달라붙어 있다. 즈문의 세월을 거스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출발 지점부터 성가시게 불던 바람이 어느새 솔내음을 퍼 나르며 땀을 씻어주는 청량제로 변한다. 산 아래

안개속은 눈과 얼음에 묻혀 황량한 바람소리마저 삼켜버렸다. 고즈넉하고 멋스러운 설국의 풍광에 취한 채 한발 한발 내딛는 사이 울창한 숲을 만난다. 백두대간을 품에 안고 하늘 높이 치솟은 원시림은 침묵에 잠긴 채 깊어가는 겨울을 구가하고 있다.

숲속을 거니노라면 미소가 저절로 얼굴에 번진다. 숲은 사색의 공간이자 대화의 통로가 된다. 혼자 걸으면 인생의 화두가 돼 가슴에 꽃히고, 여럿이 함께하면 세상의 시름이 씻겨 지는 느낌이다. 길에서 인생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 숲 말고 또 있을까?

산행 시작 여섯 시간 만에 오늘의 종착지 이승복 생가터에 이른다. 담도 울도 없는 소박한 초가한 채, 이런 평화로운 곳에서 끔직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때의 비극을 외면한 채 지나는 관광객들의 수다가 어지럽게 흔들린다.

한파 속에 눈길을 헤치느라 모두 지쳐 있다. 그래도 이 설국을 만끽하기 위해 새벽부터 먼 길 마다 않고 이곳까지 달려 온 게 아

닌가. 자신과의 싸움,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설산의 비경을 가슴에 묻으며 길고 힘든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저만치 산 정상엔 벌써 어둠이 깃들었다. 나뭇가지에도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고, 하루 내내 푸르던 하늘도 노을빛에 놀라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다.

세인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과, 할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로 나뉜다. 그들이 마주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두려워 소중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족감에 겨운 미소든, 불만에 찬 냉소든, 이 모두 함께 어울려야 한다. 새해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듬뿍 안겨주는 한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OBLIGE CLUB

새해 소망을 담은 고객님의 작품들,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으로 보내주세요!

혼자 보기 아쉬운 고객님의 그림, 에세이, 사진, 시 등 자유작품을 보내주세요.
총 30분께 문화상품권 또는 커피빈 프리미엄 티를 드립니다.

응모대상 미래에셋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응모기간 2016. 1. 20 (수) ~ 2016. 2. 14 (일)

주제 모든 자유작품 (그림, 에세이, 사진, 시 등 자유작품)
* 1인 1작 응모를 원칙으로 하며, 다작 응모시 1작품만 임의 선정하여 심사

응모방법 고객명, 연락처, 응모사연과 함께 작품파일을 첨부하여
culture@miraeasset.com으로 보내주세요.
※ 응모 시 고객명, 연락처, 응모사연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당선선물 - 우수작 : 문화상품권 10만 원 (10명)
- 가 작 : 커피빈 프리미엄 티 (20명)

당선자 발표 2016. 2. 29 (월) 예정
* 당선 고객에 한해 이메일로 개별 안내 예정이며,
당선작 및 당선 고객명은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3-4월호>에 게재

문의사항 미래에셋증권 스마트금융센터 (1588-9200)

유의사항 ■ 응모 접수완료 메일은 공모기간 종료 후 3영업일 이내 일괄 발송됩니다. ■ 응모 시 기재된 고객명과 연락처가 당사 정보와 상이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출품작을 비롯하여 응모사연의 진정성 및 감동성 등을 기준으로 당선작을 선정합니다. ■ 심사에 관한 모든 내용 및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응모작 수 및 수준에 따라 시상을 가감 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선작 발표일 및 시상품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시상품은 제품 품질 등의 사유에 의해 기타 동등한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시상품 관련 모든 제세공과금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부담합니다. ■ 당선작과 당선 고객명은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에 게재되며 일부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본 공모전의 응모, 시상품 발송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동 목적의 이행 완료 시까지 이용·보관됩니다.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의 신년 문화이벤트에 지금 응모하세요!!

관람 신청사연을 간단히 보내주세요.
총 10분을 추천하여 연극 무료관람 기회를 드립니다.



연극 <렛미인>

관람일시 2016. 2. 14 (일) 오후 6시 30분

공연장소 예술의 전당 CJ토월극장 / 만 13세 이상

출연진 박소담, 이은지, 오승훈, 안승균, 주진모, 박지원 등

출연진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결손 가정의 외로운 십대 소년 오스카, 오스카의 옆 집에 새로 이사온 신비한 어린 소녀 일라이,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과 슬픈 사랑 이야기.

응모대상 미래에셋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응모기간 2016. 1. 31 (일) ~ 2016. 2. 3 (수)

응모방법 관람을 원하는 공연번호, 고객명, 간단 응모사연을
013-3366-2244로
문자 메시지(SMS)를 보내주세요. (30자 이내)
* 별도의 정보이용료 없음
※ 본 관람권의 일시 변경 및 환불은 불가하므로
상기 관람일시에 참석 가능하신 분만 응모 바랍니다.

당첨선물 연극<렛미인> 관람권 (10명, 1인 2매) / 좌석등급 - S석

당첨자 발표 2016. 2. 5 (금) 예정
* 당첨고객에 한해 문자(MMS)로 개별 안내 예정

문의사항 미래에셋증권 스마트금융센터 (1588-9200)



유의사항 ■ 연극 관람권 이벤트 응모 시 전송된 고객님의 휴대전화번호가 당사의 고객 정보와 상이할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발표일 및 경품은 당사 또는 제작사 측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 동등한 경품 등으로 대체·제공됩니다. ■ 고객님의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본 이벤트의 응모, 경품 제공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동 목적 이행 완료시까지 이용·보관됩니다. ■ 상기 관람일시 및 출연진은 제작사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